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10개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 2021년 10월 7일 10:00
- 제주KAL호텔 대연회장(2층)

목 차

● 인사말	6
● 격려사	8
● 축 사	9

■ 기조 강연

한국학과 제주 지방학	15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 주제 발표

제주학의 가치와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33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55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한 제언	67
-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김아연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기획연구부장)	
제주학진흥원의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제언	87
- 한국국학진흥원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 토론

재단법인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107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제주 미래의 상상력 고취, 공공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109
토론_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가)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112
토론_양정필 (제주대학교 교수)	
(가) 제주학진흥원 설립에 관한 제언	116
토론_진선희 (한라일보 편집국 부국장)	
제주학 진흥에 대한 정책적 검토	119
토론_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 소장)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01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등록	
	인사말, 격려사, 축사	
	영상 관람: 제주학연구센터 10년의 성과와 미래	
	기조강연: 한국학과 제주 지방학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점심 시간	
(좌장: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학의 가치와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한 제언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김아연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기획연구부장)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휴식 시간	
(좌장: 손명철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수)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양정필(제주대학교 교수), 진선희(한라일보 편집국 부국장), 박찬식(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5회 제주학대회’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8월 12일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회 제주학대회’의 큰 주제를 ‘제주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라고 정한 것은, 우리 센터 설립 10주년을 자축하고,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정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넘어 제주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씽크 탱크(think-tank)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전신이 될 제주학연구센터는 (가)제주학진흥원이 첫발을 내딛는 그날까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학대회’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중심 사업의 하나입니다. 제주학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제주학대회가 열리는 10월 둘째 주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어 포럼 <놀>’ 운영과 ‘제주어 자료전’, ‘제주학 학술대회’, ‘제주학 자료전’, ‘제주학 역사 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직간접으로 저희 센터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조강연을 위해 먼 곳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주신 제주대학교 손명철·현승환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제주대학교 허남춘 교수님, 한국학호남진흥원 김아연 전 기획연구부장님, 한국국학진흥원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님, 우리 센터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 토론을 해주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고재원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지영 정책연구실장님, 제주대학교 양정필 교수님, 한라일보 진선희 편집국 부국장님,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 박찬식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주학대회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제주학연구센터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주학대회를 기획하고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다해 준 김선필 연구원 등 우리 센터 식구들에게도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평소 저희 센터를 깊이 응원해주시고, 직간접적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열 돌을 맞은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따뜻한 제주학’, ‘소통하는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의 실현으로, 제주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2년, 열한 돌 짜인 ‘제6회 제주학대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 순 자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주학대회’가 올해로 5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제주학계의 최대 행사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제주학대회를 준비해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0년 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제주어 보존과 전승을 위한 사업, 제주 역사 편찬 사업, 제주 민속문화 연구 사업, 제주학 연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제주학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학연구센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제5회 제주학대회는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주학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앞으로 제주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주학대회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내빈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주학대회를 통해 제주학이 지역학이자 한국학으로써 더욱 굳건하게 자리 매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제주문화 창달과 제주인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제주연구원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성장을 거듭해 제주학진흥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문화의 창달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주도하는 학술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 제주학대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 내빈들과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제주시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올해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주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장 제주다운 제주를 위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가치 보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한국의 지역학을 선도해왔으며 이제는 제주학 진흥원 설립으로 더 큰 발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제주어 포럼과 학술대회, 제주학 역사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로 통한다는 융복합 정신은 제주학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언어와 문화 역사 정신 등을 아우르는 제주학은 지역과 연대하고 시민을 아우르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로 제주학 진흥원 설립이 더 앞당겨지고 제주학의 미래를 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회의원 송 재 호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고 높은 하늘이 제주에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름 내내 지쳐있던 몸과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맑은 가을날,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및 제5회 제주학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제주학연구와 제주학의 가치를 높이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주시며,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는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학문 분야 간의 협동·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인의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국내외로 드높이는 기회가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제주학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이 행사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제주어로 소통하고 제주어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설계하여 제주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행사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항상 머무는, 그래서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 행사를 통해 더 넓은 시각으로 제주학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회의원 오 영 훈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1년 설립 이래 제주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과 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민들과 더불어 더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제주를 돌아보고, 현재의 제주를 분석하며, 미래의 제주의 가치를 찾아가는 제주학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제주학연구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고 있는 ‘제주학대회 학술대회’가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학, 지역학, 제주학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주연구원 정책사업단 산하기구로 편제되어 있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빠른 시일 안에 <제주학진흥원>으로 독립 전환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문화와 가치를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제주학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 학문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과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제주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회의원 위 성 곤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제5회 제주학대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
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경험을 공유해주시기 위해 포럼과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전문가 여러분께 각별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학의 독창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료전과 역사탐방 참가자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학은 제주의 언어와 역사, 제주인의 삶의 융합체인 문화를 담은 그릇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그릇을 쓰임새 있게 세공하여 단단하게 구워내는 가마터입니다.

그동안 센터는 제주학총서 발간,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제주어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학 기반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주학대회가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정은 제주학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과 제5회 제주학대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
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구 만 섭

축사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5회 제주학대회도 함께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순자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지역학의 선구자입니다.

제주의 역사와 민속, 언어를 연구하며, 학문적 기틀을 쌓아왔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자료를 발굴하고, 흩어져있는 자료를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억 속 언어를 되살리는 노력으로 이제는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공간적 영역에서 학문적 영역으로 이동시킨 경험은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쌓아온 10년의 성과는 제주에도 큰 자산입니다. 인문과 사회·자연과학을 망라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주공동체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연구해 온 제주학연구센터는 이제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분야로의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5회 제주학대회는 이런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짚으며,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과 제5회 제주학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축사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오늘,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한 제5회 제주학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제주학대회에 참석해주신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님,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학과 제주 지방학”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님을 비롯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교수님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주학대회는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시대와 주변 환경에 맞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제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학 정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 제주어 연구 등을 총망라한 제주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해 왔으며, 독자적인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연구 성과를 통해 제주학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학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소통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유기적인 연구 토대를 구축하는 연구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오늘 제주학대회는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가 이루어낸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학진흥원의 설립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제주학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주학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제주학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다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제주대학교 총장
송 석 언

한국학과 제주 지방학

안 병 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국학과 제주 지방학

안 병 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1장. 전근대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

1) 역사 서술과 한국학

한국학은 어떤 학문이고 언제 시작되었는가? 모든 개념 정의가 그러하듯 한국학의 개념도 엄밀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한국과 한국이 다른 나라나 집단과 교류한 것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¹⁾ 현재 한국학은 개화기에 ‘본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의 ‘조선학’, 해방 후의 ‘국학’으로 이어졌으며, 1960년대 후반 ‘한국학’으로 부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전근대에는 한국학이라고 부를만한 학문은 아예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근대에 한국학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려면, 위에서 정의한 범주에 속하는 연구와 그 성과가 없었든지, 그런 범주에 속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그 과정이나 성과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전근대에도 나름대로 한국에 관하여 연구한 성과는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학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연구 과정에서 근대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결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적 성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러한 평가가 타당한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학문’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근대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 가능성을 학술사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학문’에 관한 정의 역시 애매하다. 학문의 기준과 개념이 시대와 지역, 학문 영역,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리, 곧 정당화될 수 있는 지식들의 체계 또는 그것을 찾아가는 지적 탐구 활동을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서 학문은 합리적 사고방식이 출현하는 때, 즉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때 시작되었으며, 동양에서 학문은 修己治人, 인격 완성을 이념으로 삼았다고 한다.²⁾

修己의 문제는 주로 유학과 불교 철학 영역에서 사변적으로 탐구하였고, 송대 理學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다. 修己 문제는 한국 유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기론, 심성론, 예론

1) 이지원, 2020 「한국학」 『한국학학술용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경일, 2020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역사의 시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9쪽

2) 김영기, 2009 「학문이란 무엇인가」 『동서사상』 7, 동서사상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성리학 도입 이후였다. 治人の 영역에서는 經世濟民을 목표로 적어도 두 측면, 즉 민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를 서술하였고, 정치·사회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功利的 목적에서 일찍부터 담론을 제시하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한 점은 지역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체성과 관련된 탐구는 주로 역사 서술로 나타났다. 그 점은 현대 지역학 연구에서 역사 연구와 사료 편찬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역사 편찬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었다. 고구려의 『留記』와 이문진의 『新集』(600년), 백제 고흥의 『書記』(375년), 신라 진흥왕이 거칠부를 시켜 편찬한 『국사』(545년) 등이 그것이다. 신라통일기에 김대문은 신라 진골귀족의 전통을 찬양하는 입장에서,³⁾ 최치원은 유교적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들의 당대사 편찬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 건설의 문화적 기념비이자,⁴⁾ 삼국이 발흥하던 시기에 ‘우리’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술하여 후대에 남기려는 의식의 발현이었다. 삼국 사람들은 『사기』나 『한서』 같은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하며 편찬하였을 것이다.

고려 건국 후에는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었다.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대 왕조들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려가 그들 국가의 통일적 계승자임을 표방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이미 神異史觀에서 벗어나 기록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치사 중심의 기전체 역사서를 편찬한 점에서 중세사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⁵⁾

인종 때 김부식 주관으로 편찬된 『삼국사기』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직접적인 편찬 동기가 “지금의 學士, 大夫들은 五經과 諸子の 글, 秦漢 역대의 역사에는 두루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일에 대하여는 도리어 그 始末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니, 심히 한탄스러운 일”이라는⁶⁾ 국왕의 지적과 “해동 삼국은 그 지나온 연수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나라의 역사책에 드러내야 한다”는⁷⁾ 김부식의 생각이라는 점이다. 오래된 우리 역사를 마땅히 기술하여 학사와 대부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데 군신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그 산물로 『삼국사기』가 편찬된 것이다.

둘째, 역사관이 수정된 점이다. 인종은 “古記는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군주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국가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권장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인종이 적시하여 비판한 ‘古記’는 『삼국사』로 보이는 만큼⁸⁾ 『삼국사기』는 당연히 『삼국사』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에 입각하여 편찬하였고, 그것은 신라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유학의 합리적 서술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관의 변화는

3) 이기백, 1978 「김대문과 그의 史學」 『역사학보』 77, 14쪽

4) 이기동, 1994 「고대의 역사인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39쪽

5) 정구복, 1993 「고려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이정훈, 2006 「“구삼국사”의 편찬 시기와 편찬 배경」 『역사와 실학』 31; 노명호, 2020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三國史』의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6) 『東文選』 권44 表箋, 「進三國史記表」

7) 『東文選』 권44 表箋, 「進三國史記表」

8) 정구복, 1993 「고려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고려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이 12세기에 이르러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파적 입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고려와 그 이전 국가들의 관계를 보는 역사체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⁹⁾

셋째, 김부식과 편수관들은 철저히 자료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저술하였다. 그들은 古記類, 금석문, 고문서, 『계림잡전』, 『김유신행록』, 『최치원문집』, 『제왕연대력』 등의 국내 문헌과 『자치통감』 같은 중국 문헌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¹⁰⁾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료는 배제하였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는 편찬 과정은 사료 편찬이자 역사 연구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편찬자들은 ‘述而不作’의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의견은 사실 서술과 구별하여 사론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곳에는 註를 붙여 설명함으로써 역사 서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삼국사기』는 인종과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편찬하였다. 그들은 앞서 편찬된 『삼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전대의 역사를 다시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비판과 연구를 통해 자국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었으며, 한국학 성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개인들도 역사 서술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무인정권 시기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해동천자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고,¹¹⁾ 충렬왕 때 일연(1206~1289)은 『삼국유사』에 단군신화를 처음으로 수록하여 한민족의 탄생에 관해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그는 불교의 관점에서 중국사와는 다른 한민족의 역사를 서술하려는 자의식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록하려는 의식이 강하였으며, 단군조선 이래의 역사와 불교사 서술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일연은 몽골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인민이 도륙당하며, 고려가 마침내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도하였고, 그러한 경험이 민족의 탄생과 전통문화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¹²⁾ 그가 불교에 바탕을 두고 神異史觀을 채택하여 『삼국사기』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전통문화를 복원한 것은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학문적 비판이었다. 일연이 신이사관에 입각하면서도 논증을 위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연구 자세를 견지한 점은 역사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한 것이다.

충렬왕 때 이승휴(1224~1300)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사시 『제왕운기』로 서술하였다. 그는 중국은 盤古에서 금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비교하고 요점을 취하여 시로 지었다.¹³⁾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차례로

9) 최근 노명호는 고려에 천하다원론계 유교사관과 화이론계 유교사관이 병존하였는데, 『삼국사』와 『제왕운기』는 전자, 『삼국사기』는 후자의 역사서로 파악하였다(2020, 앞의 논문).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역사 서술을 둘러싼 대립은 유교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학문 계열간의 대립으로서, 이는 학문 발전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0)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출판사

11) 노명호, 1997 「동명왕편과 이규보의 다원적 천하관」 『진단학보』 83;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2) 김두진, 201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채상식, 2017 『일연 : 그의 생애와 사상』 해안

13) 『帝王韻紀』 「帝王韻紀進呈引表」 遂乃古往今來, 皇傳帝受, 中朝, 則從盤古而至於金國, 東國, 則自檀君而洎

서술하였지만,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지은 뜻이 “우리나라에서 시작” 하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별개의 천하에서 시작한 문명국임을 “요동에 따로 하나의 천하가 있어 돌연히 중국과 확연히 나뉘었고” “예의로 집안을 일구니, 중국 사람들이 小中華라고 하였다.” 라고¹⁴⁾ 표현하였다. 그는 한국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서사시의 내용이 “國史”와 『本紀』, 『殊異傳』 등에서 널리 채록한 것이라고 전거를 제시하였다.¹⁵⁾ 『제왕운기』에 관하여는 원에 대한 사대를 합리화한 저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부마국으로 전락한 고려의 지식인이 민족 역사의 유구함과 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승휴의 민족 고유신앙이나 혈통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은 일연보다도 오히려 강하였다.¹⁶⁾

고려시대에는 당대의 역사를 서술하여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도 활발하였다. 김관의의 『편년통록』은¹⁷⁾ 고려 중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 보이며, 태조 왕건의 선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려 世系」는 그 시작 부분이었을 것이다. 당대사 편찬 경향은 고려 후기 이세현, 민지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¹⁸⁾

2)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와 한국학

당대의 정치·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도 경제론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려 초기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려 국가의 당면 과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상소문의 형태여서 연구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본격적인 정책 논의는 고려 말 사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¹⁹⁾ 조준 등의 사전개혁론자들은 당시 토지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한 뒤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토지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자신의 경제적 기반과 이상에 따라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논쟁은 당대의 학자 관료들이 참여하여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그 범위도 토지를 비롯하여 호구와 군사제도, 부세 수취, 진휼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쳤으며,²⁰⁾ 과전법이 제정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학문의 요소로 중요하게 거론하는 토론의 장을 본격적으로 연 중요한 사례이다.

경제론을 학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조선 초기 정도전이었다. 그는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을 잇달아 저술하여 조선의 국가 체제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분야별로 중국과 고려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²¹⁾

我本朝，肇起根源，窮搜簡牘，較異同而撮要，仍諷詠以成章。

14) 『帝王韻紀』 권하,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陵連如線. 一作華句. 中方千里是朝鮮, 江山形勝名數天. 耕田鑿井禮義家, 華人題作小中華.

15) 『帝王韻紀』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16) 한영우, 1994 「고려시대의 역사관과 역사서술」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54쪽

17) 하현강, 1988 「『編年通錄』과 高麗王室世系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이기동, 1992 「金寬毅」 『한국사시민강좌』 10, 일조각

18) 박종기, 2019 「이세현 ‘고려관’ 현대사 연구가」 『고려 열전 - 영웅부터 경계인까지 인물로 읽는 고려사』 휴머니스트; 민현구, 1996 「閔漬」 『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19) 이경식, 2012 「고려말의 전제개혁과 그 범위」 『한국중세 토지제도사-조선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경식, 2011 「고려말 토지문제의 악화와 사전구폐론」 『한국중세 토지제도사-고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기섭, 2016 「고려말 정도전의 토지문제 인식과 전제개혁론」 『역사와 경계』 101, 부산경남사학회

20) 이민우, 2015 「고려말 사전 혁파와 과전법에 대한 재검토」 『규장각』 47

21) 한영우, 1973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송재혁, 2020 「정도전의 국가론 - 『조선

정도전이 당시 동아시아의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던 중국을 준거 내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이었다. 동아시아 수준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한국의 경제론 연구는 정도전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²²⁾

현실의 당면 과제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약재를 사용하여 보다 넓은 계층이 의료 혜택을 입도록 한 『향약구급방』(1236)과 『향약집성방』(1433), 하삼도 지역의 선진 농법을 다른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농사직설』(1429), 조선의 예법을 정리한 『국조오례의』(1474), 국가경영의 틀을 제시한 『경국대전』(1476), 전국 지리서 『동국여지승람』(1481),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학서 『동의보감』(1610) 같은 여러 분야의 책이 잇달아 편찬되어 백성의 생활 향상과 통치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한글 창제를 위한 음운학 연구는²³⁾ 당대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의 현실에 바탕을 둔 연구 결과이므로, 한국 경제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는 화담 서경덕(1489~1546), 퇴계 이황(1501~1570), 율곡 이이(1536~1584) 등 걸출한 학자들의 활약으로 이기론, 心學, 예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 뒤 반계 유형원에서 다산 정약용에 이르는 일군의 실학자들이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를 비롯한 사회경제 문제, 정치와 법제 문제, 농업 기술 문제, 역사와 강역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심화시켰다. 유학자들의 경제론은 물론이고 禮論이나 호락논쟁 같은 사변성이 강한 철학도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의 논의는 당시 동아시아 수준에서 보아도 뛰어난 것이었다.²⁴⁾ 현실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수월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학은 정체성 확인과 실용적 목적으로 당대 왕조 혹은 전 왕조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역사 서술은 『삼국사』를 편찬하여 계승의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족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려 한 고려 초기에 시작되었고, 그 뒤 선행 저술을 비판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와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롭게 서술하였다. 선행 저술의 비판과 새로운 서술은 한국 역사 서술의 특징이자 발전 양상이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연구 방법도 세련되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다가가려는 실증적이고 내적 합리성을 갖춘 연구 자세의 산물이었다.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론적 연구는 고려 말 토지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정도전이 중국과 고려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는 학술적 작업을 거쳐 새 왕조의 통치체제를 제시하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수기론에 해당하는 이기론이나 명분론 등이 발달하고, 조선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농업, 의학, 통치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경제론과 수기론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

경국전』과 元 제국의 유산- 『韓國思想史學』 65, 韓國思想史學會; 김태희, 2018 「조선의 ‘유가적 법치’ 이념 -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편찬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2) 이현창, 2018 「문화개방 이전 동아시아의 經世濟民學」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47쪽

23) 이정곤, 최경봉, 2018 『한글과 과학문명』 들녘; 정광, 2014 「세종의 한글 창제 - 동아시아 제 민족의 문자 교류와 훈민정음의 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4) 이현창, 앞의 논문, 61쪽

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 단계에 이르러 다양한 경세론이 제기되고 경학 이해의 수준이 깊어지며 전근대 한국학은 정점에 이르렀지만,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련의 한국학 발전 과정은 이렇게 서술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주로 독서층 즉 ‘士’였다. 개화기의 ‘본국학’은 이러한 연구를 계승하고 근대 학문을 수용하며 탄생한 것이다. 물론 전근대의 한국학 수준이 근대 학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엄밀하게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인문학 특히 사변철학 등은 동양의 오랜 방법론을 따라서 연구를 심화시켰으며, 때로는 방법론과 내용이 함께 발전하였다.

2. 지방성과 지방학, 그리고 한국학

1) 지방학과 한국학

제주와 같은 지방을 연구하는 학문을 흔히 지역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지역학’이 지칭하는 대상과 내용은 이중적이다. 민족학(국가학)과 대비되는 지방학(local studies)과 민족학(국가학)을 넘어서는 지역학(regional studies)이 그것이다. 이들의 구분은 視點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자체로 중심성과 가치 부여를 은연 중에 혹은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번 논의의 대상인 제주학은 기본적으로 전자에 속하는데, 이는 한국학과 상대적인 위상을 늘 전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視點을 한국 밖으로 옮기면 한국학이나 한국학을 포함한 동아시아학은 지역학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관계 설정은 지역학을 시작한 미국내지 유럽 중심성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학과 지방학의 관계를 역사의 측면에서 서술한 제주 역사교사 이영권의 다음과 같은 글은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그는 지방의 역사가 중앙의 역사와 많이 다른데, 중앙 중심의 지배계급 입장의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 지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 사라져 역사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국가 역사에서 지방사가 배제되어 결국 역사의 알맹이가 사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5) 이영권, 2000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7쪽

지방사의 연구와 보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 면에서 국가사는 지방사와 대척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한국학과 지방학에 대입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학을 지역학으로 명명하여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지방은 중앙과는 다른 생활공간이었다. 지방은 중앙의 지배 대상이었으며, 근대 이전에는 군현제를 통해 지방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지방인에게 지방은 삶의 터전이자 자율의 공간이었다. 중앙에서 보낸 수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향리, 유향소, 사림 등이 자율권을 행사하였으며, 지방의 상층 부류가 중앙 관료로 진출하고 중앙 관료가 지방으로 퇴거하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의 지배층이 교류하며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²⁶⁾

한국학과 지방학은 계서적이거나 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평행적 평등적 관계이며, 각기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학은 한국학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에 소속되지는 아니하며, 곧바로 지역학 혹은 지구학과 교류하고 공감하며 확장하고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학과 지방학은 독립적 위상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장기간 유지해 왔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저항한 민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민족(국가)학이 현실적으로 차지하는 압도적 위상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학을 서양에서 부르듯이 단순한 지역학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족학 자체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면 서양 제국의 관점에 매몰되어 한국학이나 동아시아 지역학의 가치를 탈각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간을 기준으로 학문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지방학-한국학-(동아시아)지역학-지구학(global studies)의 네 층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²⁷⁾ 이렇게 구분하면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애매한 이중성을 해소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학이 민족학과 대립하면서도 그의 일부로 존재하였던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효과적이다.²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방학이 발전하기 어려웠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정치사회체제가 중앙집권적으로 구조화되고 운영되어 본래 독자적인 문화와 기억을 간직한 지방의 정치공동체가 상호 통합되거나 중앙으로 흡수되면서 특수성을 상실해 온 과정을 밟은 점이다. 그러한 과정은 고대사회에 병립하던 다수의 소국이 삼국으로 통합되고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세 중앙집권적 국가도 장기간에 걸쳐 강한 흡수력을 발휘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에는 토착 세력이 독자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방은 중앙에 비하여 뒤진 곳, 촌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었고,²⁹⁾ 지방문화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근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방문화를 이끌어갈

26) 박종기, 2003 「왕조의 장기지속성과 고려의 지방사회」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출판부

27) 조동일 교수는 근대 극복의 다음 시대는 세계-문명권-국가-지방이 각기 주권을 갖는 4중 주권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2002, 「한국학 연구의 새 방향」 『한국학논집』 2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9쪽), 지방학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 지방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과 전지구적인 것을 하나의 차원에서 파악하되, 지방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지구화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지구지역학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담는 ‘지역’이라는 용어가 유용하다는 견해도 있다(백영서, 2009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불)가능성-보편담론을 향하여」 『동방학지』 147, 13-14쪽).

29) 알랭 코르뱅, 박용진 옮김, 2010 「파리와 지방」 『기억의 장소 4- 프랑스들2』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향촌사회가 사실상 해체되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방의 고유문화와 특수성이 빠른 속도로 소멸되면서 결정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나마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기억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덕분에 지방학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 연구방법론의 미비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민족과 국가 중심의 가치관이다. 근대 학문이 도입되던 시기에 국권을 상실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획득된 민족의 절대적인 위상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을 주변화하고 무력화하였다. 그 정도는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지역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강하였다. 더욱이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체제와 국가 중심의 반공적 가치관이 공고하게 자리잡으면서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실체는 민족과 국가밖에 없게 되었고, 지방민과 지방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국학과 지방학은 일정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남긴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공간은 주민의 생활 무대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역사와 기억의 장소이자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공간의 규모가 다르고, 대상 공간에 거주한(하는) 주민 공동체의 성격이 다르며, 그에 따라 연구 대상의 범주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한국처럼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위상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은 권력관계와 생활, 문화 수준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학은 한국학에 포획되어 형성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2) 읍지의 편찬과 지방학

지방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록상으로 보면, 8세기 초 한산주 도독을 지낸 김대문이 그 지방의 역사·지리·풍속 등을 기록한 역사지리서로 보이는 『한산기』를 저술한 데서 보듯 지방에 관한 관심은 외지인인 중앙 관료들이 먼저 표명하였다. 이런 저술은 지역 주민의 입장과 관점이 아니라 외방인 통치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한계는 중앙정부가 지리지를 편찬하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고려가 개경을 수도로 삼으면서 『송악명당기』 등의 도참서가 유행하였지만, 이는 현대식으로 분류하면 首都學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앙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통치와 군사적 이유로 지리에 관한 지식이었다. 그러한 관심은 조직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같은 전국 지리지를 편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각 군현이 시작한 실태 조사 작업이 지방학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지리지 편찬의 연장선에서 16세기 말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읍지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학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초의 사찬 읍지는 경상도 함안 군수 鄭述가 주관하여 1587년에 편찬한 『咸州誌』이다.³⁰⁾

30) 崔允榛, 1994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 읍지」 『전북사학』 17; 최원석, 2015 「咸州誌 편찬 및

실제로 읍지를 편찬한 것은 지역 선비인 李汝宣, 박제인, 이정, 吳灋 등이었으므로, 『咸州誌』는 고을을 다스리는 데 참고하려는 수령과 자기 고을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려는 지방 지식인들의 합작품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리지와 차별성이 있다. 읍지에서는 『동국여지승람』보다 훨씬 상세하게 항목을 설정하여,³¹⁾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주로 통치에 필요한 정치 경제 군사와 같은 항목을 수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역사적 인물이나 고적, 사찰, 詩文 등 문화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동국여지승람』을 합한 것이어서, 한 지방의 실태와 역사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咸州誌』의 뒤를 이어 『咸川誌』(1603) 『永嘉誌』(1608) 『商山誌』(1617) 『昇平誌』(1618) 『守城誌』(1631) 『晉陽誌』(1632) 『松都誌』(1648) 『春天邑誌』(1648) 『耽羅誌』(1653) 『龍城誌』(1699) 등의 읍지가 속속 편찬되어 17세기는 사찬읍지의 시대라고 볼 정도였다. 읍지 편찬의 전국적 확산 추세 속에서 1653년 제주목사 李元鎮이 제주목과 旌義縣, 大靜縣의 실태를 조사하여 『탐라지』를 편찬하였다. 『탐라지』도 지방관이 주도하고 현지 지식인인 典籍 高弘進이 監校로 참여한, 수령과 지방 지식인의 합작품이었다.

申纘의 발문에 의하면 『탐라지』의 편찬은 이원진이 제주의 상황을 기록한 圖籍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무지를 걱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하되 『濟州風土錄』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내고 題詠 등 빠진 것을 수집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편찬하였다. 『제주풍토록』은 기묘사화 때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끝내 사사된 사림과 관료 金淨(1486~1521)이 남긴 건문기이다. 그리고 士人 고흥진에게 감수 교정하게 한 뒤 인쇄하였다. 문헌 조사와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편찬한 것이다.

편찬 동기와 과정은 위와 같지만, 17세기에 사찬 읍지 편찬 바람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었던 점과 육지 사람들의 제주에 관한 지식 욕구가 증대한 점, 그리고 제주에 관한 정리된 서적이 없었던 점, 이원진의 조부가 『咸川誌』를 편찬한 李尙毅인 집안 내력이 편찬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³²⁾ 『탐라지』의 편찬으로 제주에서는 기억의 기록화, 역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그런 면에서 제주학의 기반을 놓는 첫 작업이 이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라지』의 전반적인 체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르면서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군현별로 첫머리에 疆界와 程途를 밝히고 이어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과 함께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의 항목 비교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	탐라지의 항목
제주	건치연혁 · 관원 · 郡名 · 성씨 · 풍	건치연혁 · 鎭管 · 관원 · 읍명 · 성씨 · 풍

구성의 역사지리적 특징」 『문화역사지리』 27-3; 김순희, 2004 「吳灋과 「咸州志」」 『서지학연구』 29
 31) 『咸州誌』의 항목은 건치연혁, 郡名, 形勝, 풍속, 各里, 戶口, 田結, 산천, 土產, 館宇, 성곽, 壇廟, 학교, 서원, 驛院, 軍器, 봉수, 堤堰, 灌溉, 亭榭, 교량, 佛宇, 고적, 任官, 明宦, 성씨, 인물, 善行, 閭行, 見行, 문과, 무과, 司馬, 塚墓, 旌表, 冊板, 題詠, 叢談 등 38개이다.
 32) 김세미오, 2020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12

목	속 · 形勝 · 산천 · 土産 · 성곽 · 關防 · 봉수 · 宮室 · 樓亭 · 학교 · 교량 · 佛宇 · 祠廟 · 古蹟 · 名宦 · 인물 · 효자 · 題詠(22)	속 · 形勝 · 산천 · 교량 · 土産 · 田結 · 성곽 · 防護所 · 水戰所 · 봉수 · 宮室 · 樓亭 · 창고 · 학교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노비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蹟 · 名宦 · 인물 · 효자 · 열녀 · 題詠(36)
정의현	건치연혁 · 관원 · 성씨 · 풍속 · 土産 · 산천 · 성곽 · 關防 · 봉수 · 樓亭 · 학교 · 교량 · 佛宇 · 祠廟 · 古蹟 · 열녀(16)	건치연혁 · 관원 · 산천 · 교량 · 성곽 · 防護所 · 水戰所 · 봉수 · 宮室 · 樓亭 · 창고 · 학교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노비 · 果園 · 牧養 · 貢獻 · 古蹟 · 名宦 · 열녀(24)
대정현	건치연혁 · 관원 · 성씨 · 풍속 · 土産 · 산천 · 성곽 · 關防 · 봉수 · 樓亭 · 학교 · 교량 · 佛宇 · 祠廟 · 古蹟(15)	건치연혁 · 관원 · 성씨 · 풍속 · 土産 · 산천 · 교량 · 성곽 · 防護所 · 水戰所 · 봉수 · 宮室 · 樓亭 · 창고 · 학교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노비 · 果園 · 牧養 · 貢獻 · 古蹟(25)

『탐라지』의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해 대략 10여 개 정도 많다. 세 고을 모두에 창고와 향약, 將官, 軍兵, 工匠, 노비, 果園, 牧養, 醫藥, 貢獻이 설정되었고, 관방은 防護所와 水戰所로 나누었다. 반면에 정의현의 성씨, 풍속, 토산 세 항목은 『탐라지』에서 빠졌고, 전결은 제주목에만 표시되었다.

『탐라지』는 제주에서 편찬된 첫 사찬 읍지로서 풍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그 때문에 『탐라지』의 내용은 제주의 ‘모든 것’에 관한 정보의 기준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출간되는 제주 읍지들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에 관한 관찰과 조사, 그리고 기록화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702년 목사로 부임한 李衡祥이 『南宦博物』을 지어 읍호를 비롯하여 자연지리와 기후, 고적, 인물과 산업, 동식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태를 기록한 박물지를 남겼고,³³⁾ 1765년에 목사로 부임한 윤시동이 주관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增補耽羅誌』, 이원조 목사가 1841년 편찬한 『耽羅誌草本』이 『탐라지』의 뒤를 이어 편찬되었다.³⁴⁾ 개인들도 제주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 생산은 제주학이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기록화가 곧 근대적 의미의 지방학 성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개 자료의 수집과 서술에 그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의미를 추구하는 학술적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읍지 편찬을 위한 지방 문화와 자연 조사 과정에서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인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33)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역, 2009 『남환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34) 김영길 역주, 2016 『增補耽羅誌』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원, 李源祚 저, 1989 『耽羅誌草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지방학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 제주학 탄생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3. 제주학의 기반과 전망

1) 제주학의 기반

지방학으로서 제주학의 성립 기반, 즉 제주의 고유성 혹은 ‘제주다움’은 무엇일까? 제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특수한 물질문명과 기억은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제주학이 성립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탐구는 과정이 현대 제주학이 될 것이다.

제주 정체성의 원천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자연조건에 있다. 그러한 지리적 조건에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생겨났다. 육지와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그러한 특성은 변형, 융합되고 때로는 소멸하며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제주는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어떤 광역 자치단체와도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 고유성, 현재의 특수성, 내부의 정체성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억과 삶이 일체화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역사적 고유성은 제주가 사실상 건국설화에 해당하는 시조설화를 갖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다.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그 州의 古記’를 인용하여 神人 셋이 땅에서 솟아나와 처음으로 제주에 사람이 살게 되었고, 일본에서 온 공주 세 명이 각기 배필이 되어 나라를 여는 데 함께 하였으며, 그녀들이 가져온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로 농사와 목축을 하여 수렵 생활에서 농업과 목축업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셋이 각기 都 즉 마을(혹은 도읍)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설화의 근거로 ‘그 州의 古記’를 든 것으로 보아, 제주에는 이런 설화를 담은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탐라지』에서는 이 설화 가운데 초기의 수렵 생활, 일본에서 온 공주와 종자, 종우 등의 도래는 생략하였고, ‘都’는 ‘徒’로 표기하였다. 저자 이원진 목사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당사가 임진왜란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시대 분위기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삼성설화는 인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단군신화 내지 주몽과 박혁거세 등의 난생설화와 동질적이다. 제주가 인간=시조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구분하여 신성하게 생각하고, 제주를 다른 천하와 구별되는 별개의 천하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제주가 육지와 무관한 정치체를 형성하게 된 연원을 인간=시조 출현 설화로 설명한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체가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독자적이고 특수한 점을 볼 수 있다. 3세기 후반에 편찬된 중국의 『삼국지』에 제주는 州胡로 기록되었다.³⁵⁾ 원삼국시대

35)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其人差短小，言語不與韓同，皆髡頭如鮮卑，但衣韋，好養牛及豬。其衣有上無下，略如裸勢。乘船往來，市買韓中”

또는 삼국 초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州胡 시기에 원거리 교역을 통해 철기문화를 수용하였으며,³⁶⁾ 교류의 자취로 산지향과 용담동을 비롯한 해안지방의 여러 유적에 청동기와 철기, 오수전을 비롯한 화폐를 남겼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교역망 속에 포함되어 한반도 남부, 일본 서부지방과 일찍부터 교류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류를 배경으로 정치체가 형성된³⁷⁾ 특성을 보였다.

제주는 삼국 및 당과도 교류하였는데, 476년 탐라국 사자는 백제에서 恩率의 관등을 받았다.³⁸⁾ ‘國’으로 표현된 탐라의 수장은 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탐라국은 조공을 매개로 백제와 宗藩관계를 맺게 되었다. 탐라국의 외교관계에서 661년 당과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백제의 부용국으로³⁹⁾ 간주되던 탐라국이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당한 사태에 직면하여 안전과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로 생각된다. 제주는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듬해 탐라국주 佐平 徒冬音律은 백제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⁴⁰⁾ 그렇지만 탐라국은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그로 인한 마찰로 신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지만,⁴¹⁾ 끝까지 신라에 편입되지는 않았다.

탐라는 고려와도 중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⁴²⁾ 1102년 고려가 탐라군을 설치하고 의종 때 현령관을 파견함으로써 독자적인 정치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고려의 한 지방으로 편제되는 큰 변화를 겪었다. 13세기 후반 이후에는 삼별초의 진주와 토벌, 원의 탐라총관부 설치와 황실 목장 개설, 목호의 난과 최영의 정복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탐라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다른 지방이 겪지 않은 특수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제주는 유배지로 선용되어 유배 문화가 형성되었고, 지방관을 통한 중앙과의 교류는 제주민의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 말부터 불경을 필두로 다수의 서적을 간행함으로써 문화 향유층을 확대하고 불교와 유학 사상의 보급을 촉진하였으며, 18세기 초 李衡祥 같은 지방관은 유학의 이념에 따라 제주민을 교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의 풍속과 생활 양식은 적지 않게 변화되었고, 고유성과 다양성은 또다시 축소 내지 소멸되고 새로운 융합문화가 형성되었다.

근현대시기에 제주가 겪은 사건들은 육지와 차원이 다른 기억과 현재의 특수성을 형성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제주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일본 열도를 방위하기 위한 방어기지를 건설하였고, 제주도민은 기지 건설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해방 공간과 정부

36) 진영일, 2008 「고대 탐라국의 성립과 교역」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보고사, 22~23쪽

37) 진영일, 1992 「고대 탐라의 교역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5~24쪽

3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2년 4월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39) 『隋書』 열전46동이 백제 “其南海行三月, 有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麋鹿, 附庸於百濟”

4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2년 2월

4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9년 2월

42) 1102년 이전 탐라와 고려의 관계에 관하여는 사실상 독립국으로서 제후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견해와(김창현, 1998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句當使 파견 등을 근거로 이미 지방으로 편제되어 있었다(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36쪽)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필자는 고려전기 여진 등에 대한 정책과 구당사의 성격으로 볼 때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립 과정에서 겪은 43사건은 제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희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주민 내부에도 동질감과 적대감을 동시에 깊게 남겼다. 이러한 제주의 특수성과 트라우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주의 역사는 한국사의 일부이면서 때로 한국사의 큰 줄기와 갈등하고, 때로 그에 희생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기억을 제주에 남겼으며, 특히 현재의 특수성은 제주학의 존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이다.

2) 비판적 제주학의 전망

제주는 사실 제주학의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면은 중앙의 공식 역사와 기억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갈등의 국면을 앞서 이영권 교사의 글에서 잘 보았다. 지방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중앙정부와 국민국가의 이념, 특히 민족학과 그의 바탕인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방학 발전에 장애가 된 민족학의 압도적 위상은 1990년대 이후 차츰 약화되고 상대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국가폭력이 남겨놓은 상처를 반공적 민족(국가)주의가 은폐하였다. 그리하여 빛나는 현재와 암울한 과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집단기억과 공식 역사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역사의 권위는 무너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를 대신하여 기억 담론이 등장하였고, 기억과 역사의 전쟁이 은밀히 진행되다가 차츰 밖으로 드러나며 기억의 영향력이 커졌다. 심지어 역사가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인 데 반해 기억은 억압되고 잊혀진 진실로 간주되었다.⁴³⁾ 한국 전체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제주는 오랫동안 기억과 역사 전쟁의 중심지였다.

제주에 이 전쟁에서 놀라울 정도의 정치적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⁴⁴⁾ 이러한 성과는 한국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수정하게 해주었으며, 제주학이 한국을 넘어 다른 지역, 예컨대 오키나와나 대만처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학은 민족학보다 더 原基的이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학의 낡고 견고한 껍질을 깨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학이 한국학과 지역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특수한 경험으로 볼 때 제주학은 한국학의 내부에 위치하면서도 한국학과 평행으로 걸어갈 수 있고, 동아시아 속의 제주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기억이나 이야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만족할 제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제주학의 생명은 제주의 고유성과 그 안에 있는 보편성을 얼마나 잘 발견하여 재기억화(remémoration)하

43)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15쪽

44) 정치적 성과로 2000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위원회 설치, 평화재단과 43평화공원 조성, 대통령의 공식 사과, ‘4·3희생자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등을 들 수 있고, 학문적 성과로는 43연구소 설립과 활동, 평화재단의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국제 교류, 연구서의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는가,⁴⁵⁾ 그리고 다른 지방, 지역과 연대하여 보편성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학이 ‘學’으로서 굳건하게 자리잡고 발전하여야 한다. 그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탁월하고 지속적인 연구 성과, 즉 지식 생산이다. 제주라는 특정한 역사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과 활동한 인물, 그들이 남긴 기록과 기억에 관한 구체적 사실(대상)을 체계적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가 제주와 한국학의 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주의에 함몰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 제주사를 연구하면서 “제주를 통해서 본 고려, 고려를 통해서 본 제주”를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에 발을 디디고 바라보는 시각을 추구하는⁴⁶⁾ 것은 그럴 위험성을 스스로 경계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사건을 기억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과정에서는 과거의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그 의미 내용의 소멸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시간 속에서 구성된 모습과 그 과거가 끊임없이 재활용되는 모습이 중요하고, 전통 그 자체보다 그 전통이 확립되고 전수되는 방식이 중요하다.⁴⁷⁾ 그러므로 재기억화가 관건이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셋째, 제주 현대사와 관련하여 세계 냉전사의 큰 틀 안에서 연구하지만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역학 연구에서 요구되는 심층 청취(deep listening),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 그리고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xivity)을⁴⁸⁾ 받아들여 동아시아,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제주학이 한국학, 나아가 동아시아 각지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초국가적 연구 성과를 산출한다면, 동아시아의 학문 지형에 영향을 주는 비판적 제주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발견하고 타자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학과 제주학 모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학은 세계의 관점에서 보편성을 발견하고 한국의 특수성이 세계의 보편성과 만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특수한 쟁점들과 다른 많은 국민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측면을 통찰하려는 노력”이⁴⁹⁾ 한국학의 세계화이며, 한국학 존립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은 제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제주학도 제주라는 공간과 사고의 틀 안에 갇힌 배타적 지방학을 지향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국학의 관점과 한국학과 관계에 유의하며,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어 연대와 지평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43사건이나 몽골의 침입 같은 개별 사례들을 국가폭력이나 침략전쟁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추상적 범주로 바꿔 읽는 ‘보편적 독해’가

45) 이때 기억은 현재 속에서 과거가 구성되고 관리되는 일반적인 방식을 의미한다(피에르 노라, 김인중 옮김, 2010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피에르 노라 외 지음, 김인중·유희수 옮김, 『기억의 장소③ 프랑스들 1』 나남, 32쪽).

46) 김일우, 앞의 책, 6-7쪽

47) 이용재, 2010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고찰』 『프랑스사 연구』 23, 한국프랑스학회, 192쪽

48) 김승경, 2021 「비판적 지역학으로서의 북미 한국학-사회과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34, 266쪽

49) 조희연, 2006 「우리 안의 보편성-지적·학문적 주체화로 가는 창」 『우리 안의 보편성 -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

요구된다.⁵⁰⁾ 그런 과정을 통해 제주의 특수한 경험과 기억 속에 내재한 보편적 메시지가 지구적으로 專有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학의 개방화도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제주에서의 기억 전쟁은 아픔과 상처라는 기억으로의 회귀를 동반한 투쟁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기억을 객관화하고 역사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하여 實在한 사건을 제주인들의 과거로 새롭게 기억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개별 기억들을 하나의 ‘지방기억’으로 통합함으로써 제주인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제주인임을 확인해 왔다. 이 과정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제주 사람들이 주도하였지만, 이에 동의하는 외부인들도 자발적 의지를 갖고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제주인은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 제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차원으로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¹⁾ 그리고 갈등과 희생의 장소를 통합과 관용의 장소로 만드는 것, 그리하여 ‘민족주의 없는 민족(사)’처럼⁵²⁾ ‘지방주의 없는 지방학’을 만드는 것이 널리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제주는 바다로 열려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섬이 아닌가.

요컨대 민족(국가)주의와 지방주의,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산출하고 소비하여 제주학을 지방학으로 굳건하게 위치짓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학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록과 기억의 수집과 관리, 연구자 양성, 재정 확보 등이 요구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소멸되어 가는 지방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개원 초기부터 문중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 수집과 정리를 추진하였고, 기록화되지 않은 지방의 설화, 민요 등을 조사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학자들이 연구 자료로 활용할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정체성 확립에 이용하고 있다. 근래 안동의 국학진흥원, 호남한국학연구원, 강원학연구소 등에서도 기록의 수집 및 기억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연구원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기록과 기억 수집과 기록화, 보존과 활용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다.

50) 백영서, 앞의 논문

51)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순혈주의적 민족 개념이 아니라 프랑스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 입각한 민족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김웅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연구』 24, 124쪽).

52) 노라가 말하는 ‘민족주의 없는 민족’은 적대감을 해소시키고 하나의 ‘민족 기억’으로 통합시키는 화해와 통합의 민족 개념이다(김웅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연구』 24, 121쪽).

■ 주제 발표

- 주제발표_제주학의 가치와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_제주학연구센터 10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주제발표_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한 제언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김아연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기획연구부장)
- 제주학진흥원의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국학진흥원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제주학의 가치와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허 남 춘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 미래가치 창조

- 제주문화의 정체성 찾기
- 해방 후 근대사 70년 동안 국가 획일주의의 횡포와 지역 문화의 실종
- 대한민국 교과서조차 탐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 지역문화자치와 문화민주화를 위해
 - 지역문화의 자립화, 자치화, 특성화, 재창조, 민주화, 독립화, 연대화 정책을 기조로.

지금 우리의 세계화

-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거나,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한류의 성공신화가 돌파구가 된다.
- 가장 제주적인 것을 아직 세계 시장에 상재해 보지 못했지만, 제주문화의 세계화도 가능하다.
-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잘 찾아내 잘 포장하여 세계에 내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 제주에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몇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로마 신화가 세계 최고라면, 구술되어 전하는 것으로 제주 신화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 장수의 땅으로 알려졌으니 제주의 음식 또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 '강술'이란 고체 술은 세계에서 희귀하다.
- 세계문화 유산과 자연유산을 품은 제주의 관광문화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기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주체와 정체성

- 이제 새롭게 세계화의 시대에 대처하면서 우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잘 이론화·체계화하여 적절한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대표 축제나 공연으로 승화시켜가는 수순을 잘 이룩해가야 할 것이다.
- 1) 첫째는 문화 주체의 확립
- 2) 둘째는 문화 창조 인력의 확충
- 3) 셋째는 정체성의 수립이다.
- 제주를 세계의 중심에 놓고, 정체성을 연구하는 인재를 두루 활용하여, 문화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세계화도 불가능하다.

지역 정체성

-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 국가의 문화 혹은 한 지역의 문화는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지역문화가 세계문화로 이동하는 쌍방향의 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문화가 더욱 활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세계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주학진흥원> 최종보고서

- 추진목적= 투자, 지역경제, 지방재정 고려
- -----→ 제주 정체성 확립
- 추진방법= 현황 분석, 타당성 조사, 행안부의 승인을 위한 설득
- -----→ 제주도민의 자주성 작동
- 설립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 지역학,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주도 지역 문화정책
- -----→ 자치분권, 탐라 千年 제주 千年 정립

와이즈포스트 최종보고서

- 추진 근거
- 1)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 2)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행안부 공기업지원과
- -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인사제도
- - 지방 공공기관 관련 법령 기준 등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 - 지방공기업 제도 총괄팀
- - 법령(공기업법, 출자출연법, 연구원법)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0. 6. 9.)

- 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 1)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을 둘 수 있다.
- → <제주학진흥원> 산하에 연구재단을 두는 것이 효율적.

외이즈포스트의 설립 당위성

- 1) 국가 균형발전 정책
- 2) 산업적 측면 – 신화의 섬
 - - IT, BT, CT(Cultural Tec)
- 3) 관광산업 문화콘텐츠의 역할
 - - 제주형 브랜드 공연(중국의 인상시리즈)
- 4) 지역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 - <제주학대학원> 설립
- 5)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적 소멸언어
 - - 통합 관리 보존 제주인의 책무, 인류의 책무

지역학의 의미와 가치

- 역사적 측면에서 지역 지방의 위상
-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 지방의 소외
- 한국문화라는 단일체는 지역문화의 복합체
- 미래지향적인 지역 지방 대우법
- 자치분권 실현의 중심이자 출발점

한국의 지역학

- 1993년 <서울학연구소> 창립
- 1978년 <제주도연구회> 창립
- 1984년 <제주도연구> 학술지 발간
- 1996년 <제주학회>로 명칭 변경
- 1967년 <제주도문제연구소> 출범
- 1976년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
- 1982년 <탐라문화> 창간

동아시아의 지역학

- 일본
- 학술적, 행정적, 주민자치 영역 확대
- → 그러나 아이누, 오키나와의 독자성 파괴, 획일화 정책
- 중국
- 상해학, 남경학, 서안학 등 40-50개 지역학
- 돈황학, 장(藏)학 등 소수민족학
- → 그러나 신장위그루, 티벳 탄압, 학살

오키나와학의 현주소

- [오키나와 아이덴티티 (沖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없고 각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 오키나와 아이덴티티를 연구하는 분야는 사회학, 문학, 역사학(근현대사), postcolonial인류학, 정치학 등이 있습니다.

오кина와어 방송

2 방송이 유명합니다.

- ①RBC方言ニュース
- https://www.rokinawa.co.jp/program_4
- ※라디오 방송이지만 50년 역사가 있습니다.
- 월-금 13:00-13:05

- ②うちなーであそぼ
- <https://www.nhk.or.jp/okinawa/asobo/> 金曜 午前 6時50分 ~ 6時55分
- ※매주 금요일 5분만이라 짧은 방송이지만 아이들이 오кина와어에 관심 갖게 시키는 효과와 오кина와 옛날 이야기를 알려 주기에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кина와학 연구소

- 法政大学沖縄文化研究所는 역사가 길고, 여러 오кина와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다.
- 法政大学沖縄文化研究所가 중심으로 되어 오кина와 지역 연구소와 연대하여 '오кина와학'을 함께 정립하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듯.
- '오кина와학'이라고 하면 法政大学교수 이었던 外間守善씨가 퇴직 후에 개인 돈으로 沖縄学研究所를 설립.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폐쇄.

오키나와학, 행정의 역할

- 伊波普猷~外間守善 등의 학문에 관심.
-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기 고향문화에 관한 관심 - 다른 지역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
- 県産本 - 오키나와 출판사가 만든 오키나와에 관한 책을 의미. 오키나와에는 지역 출판사가 많고, 그런 지역(지방)은 일본 내에 없음.
- 世界のウチナーンチュ大会와 「しまくとぅば」 普及継承에 관계 하는 활동

초중등학교에서 오키나와 언어와 문화 등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가요

- 일본 文部科学省 지침에는 郷土教育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文部科学省은 의무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과목과 내용을 전국 통일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역사나 언어에 관해서는 독립한 과목은 없고 역사는 社会科과목에서 약간만 가르치고 오키나와어에 관해서는 国語과목에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0년도부터 '総合的な学習の時間'라는 과목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과목 내용은 학교마다 결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그 시간에 郷土教育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어를 연습하거나 지방 방음관 가거나 고향 문화를 공부하거나 등등. 그럴 때는 지방 교육위원회와 연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神谷)
- 2013년 나하교육청에서 <시마구투바로 말하며 놀자> 발행.
- 2014년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고향의 말>

세계의 지역학

- 영국과 웨일즈
- 1400-1425년 잉글랜드에 합병
- 1.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의식 부활
- 1999년부터 자치권 이양
- 내부충돌 – 웨일스 웨일즈, 잉글리시 웨일즈
- 웨일즈어 TV방송 정치 이슈
- 웨일즈어와 영어 공용어 사용 – 2중언어 법안 통과 2011년
- 웨일즈 수도-카디프



웨일즈어(Welsh)

- Cymraeg 2050, Cymru
- 켈트어파 브리튼어군(저먼어와 다름)
- 100만 명 웨일즈어 사용자 목표
- 현재 56만(10%) → 100만(20%)
- 언어 → 문화, 정체성, 독립국가 지위
- 이를 위해 조기교육, 보육부터 투자
- 방송매체 적극 활용
- 2중언어 정책의 장점 부각

100만 Welsh speakers 인프라

- 지역사회와 경제
- 문화와 미디어
- 디지털 기술
- 언어 인프라 구조
- 언어 플랜
- 평가와 연구

2021년 새로운 커리큘럼

- Welsh를 필수코스로.
- 현재까지 준비했던 예산 740억(46만 파운드)
- 새로운 커리큘럼 준비 485억(30만 파운드)
- 보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언어교육 중시
- 5세 전후
- 교사양성: 웨일즈어 초등 2,900→5,200, 중등 500→1,200. 웨일즈어 매체 중등교사 1,800→ 4,200명.

웨일즈의 시작

- 1998년 웨일즈 정부법 제정
- 1999년 자치의회, 자치정부
- 독립찬성 12%(2014년)
- → 24%(2019년)=브렉시트에 반대
- TV 두 버전으로 방송, 영어버전=웨일즈어 자막
- 간판, 표지판, 건물명=2중 언어



지역학의 탄생

- 자국 자민족 중심세계는 중세에 들어 문명권으로 나뉘어 성장
- 그러다가 서구 유럽 중심의 근대가 등장, 지구 전체가 파탄
- 제1세계의 횡포 – 식민지화, 노예화
- 제2세계의 횡포 – 공산주의 혁명
- 제3세계의 독립 해방 투쟁

제3세계의 약진

- 제1세계의 말석에서 모방과 수입
- 제2세계의 신참자는 곤경과 실패
- 제3세계의 선두주자는 민족문화의 역량
- 제3세계 아래에서 소외, 차별, 배제되는 소수민족과 지방의 반기 – 민족모순의 확대
- 대부분 단일민족이 아니다. 다민족, 다양한 지역문화의 집합체이다.
- 제4세계와 제주학

제4세계의 발견

- 환태평양 관점에서 바라보기
- - 중국 영파,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나가사키 등 해양 네트워크 관점
- 몽골제국과 말
- - 중세 제국의 흔적이 이제는 제주 풍경
- 하멜과 표류 표도
- - 세계와 만나는 최전선
- 구비전승의 보고
- - 기록문화는 빈약하지만 구비문화는 세계적

제4세계 제주학의 가치

- 지사학(地史學)과 원시 고대의 보편성
- 제주어(중세어의 보고)
- 제주신화(창세신화 등)
- 세계자연유산, 세계무형문화유산
- 제주 민속
-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접점
- 독자적 문화 창조

제주도의 거시적 현안

-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발전전략
- → 생태평화의 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
- 관광개발과 환경파괴: 제2공항과 항만사업 (40만평 규모), 주거환경 위기, 행복지수 하락, 토지 집값 상승
- 자연 전통 공동체 파괴, 정체성 상실 위기
- → 제주 마을 정체성 근간인 '따로 또 함께'의 철학 정립시기(근대+탈근대의 정신)

제주도 현안과 해결책(1)

- 1. 교육의 현장
- 국가주의, 입시의 문제로 지역 언어와 제주문화를 외면
- → 탈 입시, 탈 중앙
- 2. '서구적 근대'의 획일주의
-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을 서구에 둠
- → 상하 동서의 통섭

제주도 현안과 해결책(2)

- 3. 서구적 근대와 교육의 합작
- 전통은 청산의 대상, 굿은 미신이 됨
- → 자기 이해, 자긍심 회복해야
- → 제주도 굿 속 신화는 세계적 가치
- 4. 국가 중앙 정권의 무관심
- 제주도는 100분의 1, 역사책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몽골 침탈 시기에 탐라가 등장
- → 국가 의무 환기, 제주학진흥원 요구
- → 탐라국 역사 복원

제주도 현안과 해결책(3)

- 5. 국가기관 교육부 문체부의 기능
-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 지역 정신문화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
- 6. 제주 지역 내부의 무관심
- 자본의 논리 속으로 함몰되고 있음
- → 탈 근대 패러다임, 자체의 이론화 작업
- 이런 필요성 속에서 <제주학진흥원>이 설립되어야 함.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진흥원>으로

- 한국학에 대응하는 제주학
- - 세계 속의 한류를 키우는 기반이 한국학
- - 세계적 문화를 주도하는 한국문화의 저력은 지역학을 기반으로 해야.
- 지역 정체성 확립, 자각(自覺)의 근거
- - 민족 국가의 하위 단위인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갖고 4중 주권(제주-한국-동아시아-세계)의 시대를 열어야.

제주학의 방향

- 인문(人文) 우선
- 시(詩) 서(書) 예(禮) 악(樂)
- 문학 역사 사상 예술
- 추후 인문 → 천문(天文, 자연과학)
- → 지문(地文, 사회과학)

<제주학진흥원>의 과제

- 1. 역사적 부채 해소
 - 몽골제국 침탈 이후 식민지적 상황
 - 조선조의 수탈
 - 4.3 살육
 - 이후 근대화 과정의 지역 파괴
- 2. 자치분권의 이론적 기반 완성
 - 말뿐인 '자치도'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
 - 지방재정 확충, 지방 공기업 확대 방안
 - 기초자치 부활, 읍면동 단위 자치 선도

<제주학진흥원>의 과제(2)

- 3.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 확장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기여
 - 제주신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 세계화에 기여
- 4. 지역 정체성과 삶의 질 제고
- 5. 공동체 문화 회복('따로 또 같이')

<제주학진흥원>의 과제(3)

- 6. 가난한 제주학 구제
- - 개인 연구소, 각 분야 제주학 관련 법인체를 통합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
- 7. 태평양을 향하는 교두보
- - <태평양학 연구센터>
- 8. 동남아시아어 특별지구
- - 대한민국 최남단의 지정학, 동남아시아를 향한 출발점
- -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특별강의 지구 지정
- - 국제교류재단과 MOU

<제주학진흥원>의 과제(총론)

-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생명 존중
- - 탈근대 패러다임의 발신처
- - 인간과 자연과 생명 모두가 존중 받는 땅
- - 자연치유의 섬
- - 인문(人文)의 가치를 창조하는 섬
- - 사람은 다른 생명체를 마음대로 죽이고, 자연을 얼 마든지 정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근대인의 편견을 시정하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이 서로 대등한 화합을 이룩해야 마땅하다.(제주의 오래된 신화에서)

결

- 의지의 관심의 문제
 - 가치의 문제
 - 제주학 독립, 정체성 실현의 출발
 - 과거 치유, 미래 지향적 역사관
-
-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조 정 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 제주학연구센터가 걸어온 길

제주학연구센터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위상을 세우고,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표방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초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 공약에 따라 2010년부터 용역 발주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고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제주학연구센터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1인 센터장 체제라 할 수 있는 소규모였지만,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거쳐 점차 사업범위와 예산을 늘려가며 성장해왔다. 2017년부터는 제주연구원 공간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기 시작했으며, 제주학진흥원으로서의 독립재단화 추진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초 제주학연구센터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독립적인 예산을 받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출범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행정적인 재단독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 등 현실을 고려하여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이 기존에 제주도의 전 분야에서 정책 연구 전문성과 연구인력 및 행정지원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원 하에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목적 등 수행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제주학연구센터는 그간 10년간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단 독립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유지 차원에서 운영되어 온 셈이다. 근본적인 거버넌스 체계 문제 해결과 제주학 및 탐라역사문화의 보존, 계승 및 진흥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그 기능의 확대 등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지속성장 발전해야 한다는 제주도민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금번 제주학진흥원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연구원 부설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재단으로서 제주학진흥원으로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과 향후 정립된 제주학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내에서도 가장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전승해오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옳이 반영해낼 수 있는 조사연구 및 대중적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학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추진 경과

1) 제주학진흥원 설립 필요성

신화와 전통문화의 섬 제주도에 지역학연구 출연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변경이자 주변으로서 제주도의 특성이다. 문화이론 중 전파론과 같이 전통사

회의 문화를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승하고 있는 제주도의 독창성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11세기 탐라국이 고려에 완전히 편입된 다음부터 육지부의 변경(주변)에 위치해왔고, 육지부의 문화가 가장 늦게 전파되는 곳이 바로 제주도였다. 반면 육지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변경에 있는 제주도의 변화 속도는 느리기에 원형을 담은 전통문화 다수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과거 한국인들이 살아왔던 전통문화가 상당수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어는 중세 국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례문화는 19세기 이전 한국사회 제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한 상태이다. 또한 신화 본풀이와 같은 구비문학들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던 과거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구비역사로서 상당부분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주변지역으로서 육지문화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 문화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자연, 역사, 인문 환경으로부터 생성된 고유한 문화가 다수 전승되고 있어 육지부와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다수 전승하고 있어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지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하루방, 발담, 목축, 해녀 등은 제주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전통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제주도 역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격변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민속문화의 멸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육지부에서는 특히 1970년대 전후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가속화된 근대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 문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린 제주도에서는 전통 문화가 대체로 잘 보존되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영향으로 제주지역의 사회변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민속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가 빠르게 멸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아주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인’ 언어로 지정할 정도이며, 구비문학은 전승 주체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던 심방과 무속, 세시풍속, 관혼상제, 의식주생활 등 민속문화가 급속히 멸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태이며 이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셋째, 제주의 문화자산은 제주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한반도의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연구하고 아카이브화하여 콘텐츠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전통문화 소멸은 마지막 남은 한국 전통문화의 소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 향후 제주학진흥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어와 민속, 구비문화와 생활문화 전통을 중심으로 제주 전통문화를 수집·기록·보존·기억·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역사문화권정비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1.6.10.) 시행에 따라, 탐라역사문화권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흥을 담당할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탐라역사문화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국내외 홍보 및 교류와 설립목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이에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진흥원으로 독립재단화 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에게 문화 전승 활성화와 대중적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주변으로서 제주도는 육지부의 문화 향유에 비해 상당부분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를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고, 전승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화와 문화의 섬’으로서 제주도 삶에 대한 자긍심과 새로운 문화 창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추진 경과 및 법률적 고려사항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연구원 산하에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제주학연구센터는 (가칭)제주학진흥원(이하 제주학진흥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주학진흥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학진흥원 설립 최근 추진경과】

-
-
-
-
-
-
-
-
-
-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도청에서 관련 용역 등을 발주하고, 제주도 및 국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상급 정부기관과 교감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에서도 센터장을 중심으로 연구원들이 일상적 사업 수행과 함께 재단독립 준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도청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이 이루어져 왔다면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센터 연구진과 도내 학계, 문화예술계, 관련 단체 등이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분담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 왔는데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근거해서 제주학진흥원 설립의 정당성은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체적인 조사연구와 사업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위 법령 5항 재단의 사업을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해온 사업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재단독립을 통한 공간 및 사업비, 인력 등이 확보되면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과 관련해서 현재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가 중심이었지만, 향후 재단 독립을 통한 공간 및 예산이 확보되면 상설적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을 오프라인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제주학 자료관(larchiveum)’을 설치하고 제주를 찾는 모든 분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학진흥원 설립 전략과 방법

1) 도내에서 지역학 연구 및 지역문화 진흥 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 인정받기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방향은 제주도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학진흥원이 지역학을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과 진흥 사업의 기반이 제주도와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립된 영남의 한국국학진흥원, 호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 충청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가 재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전폭적인 지역주민의 성원과 도움 없이는 설립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 독창성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일찍부터 고유한 문화와 자치 전통이 강했던 지역이기에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과 전승의식 역시 강하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을공동체 곶과 제의 등 전통문화에 대한 전승의지, 거의 모든 마을이 수행한 마을지 발간 성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몇몇 유력 가문이나 집단 등의 지지를 통한 재단 설립이 아닌 제주도민 전반에 걸친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야만 재단 설립 이후에도 제대로 지역학 연구 및 진흥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 시 보다 강화된 학제적 균형과 센터 사업의 다변화 모색,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인문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적극 지역학 연구에 끌어들이야 할 것이며, 제반 유사 기관과의 협의와 네트워킹 강화, 주민들이 대상이 아닌 직접 참여하여 지역학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실현 등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번 제주학대회에서도 개최한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지역문헌자료 번역가 양성 과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역사문화권정비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최적화된 기관으로서 자리 매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2020년 역사문화권정비법 등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제주학진흥원의 대응전략과 추진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의 문화자치 전통과 독창적인 문화에 대한 발굴, 즉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조사연구와 발굴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자치 생태계를 재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최적화된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과 관련해서 탐라 이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현재의 지역문화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문서 조사 해제,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유배문화 자원 조사, 호적중초 문화재 지정 조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추진 사업	상세 추진내용
추진성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조사, 수집, 정리, 연구수행, 편찬보급, 아카이빙 구축으로 연계 • 탐라 이래 제조 역사를 총괄하는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 • 제주 관련 관찬, 사찬 역사서, 문집, 기행문 등 귀중한 한문 전적과 외국문헌의 번역을 통해 제주학 연구의 기반 마련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2021년 현재 •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 <승정원일기> 제주 기사 추출 및 번역, 정리 등
고문서 조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2020년 현재 • 제주 안덕면 상창리 고문서 100여점 발굴 및 정리, 제주도두리 마을 소장 고문서 정리, 제주 상예리 고문서 등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편찬 및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2019년 및 2019년부터 2021년 현재 •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 사료 등 신문기사 전수 조사, 추출 및 번역, 정리 등

유배 문화 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 제주 유배사 연구, 유배 문화와 관련된 일본 콘텐츠 제작 및 유배인 관련 역사 문헌 자료, 민.관 소장 유배 문화
제주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부터 2020년 • 제주도내 호적중초 비롯 고문서 자료 현황조사 및 보존관리 대책 마련,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문화재 지정연구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 제주의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 제주여성의 선각자이자, 선구자로 뽑히는 고수선의 일대기 발굴 및 정리 등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및 한국고문서학회 공동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 고대탐라문화의 수수께끼 등 제주역사 재정립 기반 마련 •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제주 등 공동 제주학술대회 개최 등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문화권정비법과 관련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탐라역사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 해외에서 본 탐라역사문화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역사문화정비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역사문화권정비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온 센터의 사업을 강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면서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3)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전국적 지역연구재단과 균형적 발전 도모

현재 재단으로 독립된 지역학 연구기관은 전국적으로 세 곳이 있는데,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충남역사문화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의 개요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유사기관과 비교를 통한 진흥원 위상 및 기능 모색

유형	기관명	설립	인력	핵심 기반사업	시사점
경북도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62명 • 현원 59명 	경북지역 산재 민간소장기록자료 수집 및 번역 ==> 유교 책판(목판) 수집 특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민간소장 기록자료 50만점(2019) 달성, 목판, 현판 등 세계유산 지정 ==> 경북에 특화된 중가문화 기반의 사업 활

				*2010년대부터 국비(문체부) 30~100여억원 확보	성화
광주· 전남도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2018	· 정원 18명 · 현원 15명	호남지역 산재 민간소장기록자료에 대한 수집 및 번역사업 *2019년부터 국비(문체부) 10억원 확보	당시 이낙연 지사 등 정치권의 유교(종가 등) 문화 진흥에 대한 의지 반영
충남도 재단법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4	· 정원 40명 · 현원 35명	역사박물관 기반의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 + 백제문화 정체성 + 충청유교특성화사업 *2020년부터 국비(문체부) 10억원 확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분리 독립 예정일 정도로 유교에 방점을 두고 있음
제주도 재단법인	제주학진흥원	2022 예정)	· 정원 11명 · 현원 10명 재단독립시 · 정원 23명	제주어 탐라역사문화 생활사와 구비전통 제주학 아카이브 => 해양과 목축, 신화 기반의 언어와 민속 조사, 연구	탐라역사문화 지역 정체성 민속문화와 무형문화 중심 핵심이자 중심이 될 수 있는 아이템 확보 및 차별화 필수

지역학 연구재단으로서 첫선을 보인 기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국학진흥원은 지역 유림과 대학 교수, 정치인 등이 힘을 합쳐 일궈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역사, 철학, 한문, 민속 등 다양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지역에서 인정받은 것은 목판 10만장 모으기 캠페인을 벌이고 각 문종의 전적과 유물을 기탁받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한국국학진흥원 모델을 따라 세워지게 되었다.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 유교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중흥시키자는 지역공감대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역시 유교문화에 기대는 바가 크다. 2022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재단이 분리될 정도로 유교문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찍이 설립된 타지역 지역학연구재단들은 상당부분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과 유명 가문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전통적 자료가 한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민간소장기록자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도 파악된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할 제주학진흥원은 위 세 기관과 같이 민간소장기록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연구재단으로서 보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호적중초의 사례와 같이 지역자치의 기록에 대한 강조, 지역 언어와 민속문화, 구비전승, 무형유산 중심의 조사연구라는 독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성과 독창성의 균형이라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제주의 고유성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 추진

당초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조례에는 제주학을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될 제주학진흥원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할 것인데, 즉, 탐라역사문화, 제주어와 민속, 구비문학 등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제주 전통문화를 주된 연구사업 대상으로 삼고 특화시켜 나가려고 한다. 물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학제적 연구 역시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다.

탐라역사문화권과 관련해서는 제주에서 생산되거나 제주를 대상으로 기록한 문헌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정리, 아카이브화, 연구 등을 진행해나가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접변 양상과 문화적 보편성 및 독창성을 조사 연구해나가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탐색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제주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교육, 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제주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어 구술채록 및 표준어 대역 등 제주어 조사사업,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등 제주어 대중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멸실 위기의 제주 민속문화, 해녀문화, 목축문화, 해양문화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 고유성의 핵심으로 민간의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 및 보급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는 모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학 아카이브에 구축하고, 향후 디지털 제주어 사전, 탐라 역사와 신화 스토리뱅크, 제주 민속문화 전자지도, 제주 해녀 자료집성 등으로 콘텐츠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전문 연구진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사학자, 지역 문화예술인 등 지역주민을 시민 아키비스트로 양성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4. 제주학진흥원 설립으로 펼쳐나갈 제주학의 미래

지역학 연구는 1967년 제주대 제주도문제연구소(현 탐라문화연구원)가 설립되면서 그 시초가 이루어졌으며 1978년 제주도연구회(현 제주학회)가 설립되어 최초로 전국 규모의 지역학 학회로 활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학 관점에서 지역학은 제주학 연구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학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화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학 연구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확산되었다. 여기에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 의해 지역문화 정책이 수립·추진되었고,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탐라역사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제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주학은 제주다움 즉, 제주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제주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편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6월 10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비하여, 탐라역사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하고, 독특한 문화자원과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를 보유한 제주도와 도민들에게는 그것들을 보전·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작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한 특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제주학진흥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갖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학진흥원의 전신이 될 현재의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설립 당시 독립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나, 현실을 고려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아래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운영이 이어지면서, 설립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구사업 예산 집행과 조직·인력 운영,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센터 운영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모든 인력이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되어 안정된 연구 분위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산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연구사업 기획과 아카이브 자료의 안전한 보관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제주학진흥원의 설립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 독립적인 연구사업 및 행정지원 체계 수립으로 운영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연구 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해 양질의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소중한 제주학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아카이브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도 출연 독립법인으로서 대외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주 지역 관련 기관과의 사업중복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사실상 제주학진흥원이 수행해나가고자 하는 과제와 사업은 확연하게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에 관한 연구와 연구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 간 중복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내 박물관이나 세계유산본부 등과 차별화되는 탐라역사문화 및 무형유산 중심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더욱 체계화 해야 할 것이다.

제주학은 제주도라는 독특한 자연, 지리 공간에서 삶을 해 온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으로 분석하는 복합 학문으로, 제주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총체적으로 성찰하여 지역의 문화와 정체감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의 발전과 연계되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 구현’이라는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 학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학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제주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주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며, 제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제주학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유관 단체 간, 제주학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제주학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 그리고 연구 성과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새로 설립될 제주학진흥원이 수행할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탐라역사 정립사업, 연구정책기획,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역사 편찬사업, 제주어 연구사업, 제주학 및 탐라역사문화 교육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원, 해양문화 자원 발굴보전사업, 제주문화유산 발굴 및 한류 콘텐츠 발굴 연계 지원 등이다.

제주학진흥원 설립은 단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도민에게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그 가치를 높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제주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노출되었던 전국적 보편성과 독창성의 자리 매김 국면, 해양문화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 세계적인 학술 및 문화 진작의 측면에서 새롭게 제주를 재발견하여 이슈와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연구기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현 제주학연구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지역 학계, 관련 단체, 제주학에 관심 있는 한국과 전세계의 학자 등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린다.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한 제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아 연 (한국학호남연구원 전 기획연구부장)

1. 머리말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
3.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한 제언
4. 맺음말

1. 머리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역학(地域學)을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¹⁾이라고 정의한다. ‘지역 연구’를 넘어 ‘지역학’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각 학문 분야의 성과들을 엮어냄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학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학은 학제 간 연구를 토대로 시간·공간·인간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학문적 장(場)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²⁾

1990년 이전의 지역학은 대학을 중심으로 순수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1990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자기정체성 확립 및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이 본격화되었고, 2010년 이후 점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학 기구 설립, 대학의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이를 정착,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광역시도는 물론, 중소도시와 지역 대학에서는 ‘서울학’, ‘인천학’, ‘강원학’, ‘충남학’, ‘전북학’, ‘호남학’, ‘영남학’, ‘제주학’, ‘천안학’, ‘용인학’, ‘수원학’, ‘아산학’, ‘홍성학’, ‘김해학’, ‘안성학’, ‘대전학’, ‘광주학’ 등과 같이 소속 행정구역명에 접미사 ‘학(學, -logy)’를 붙여 지역학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중 제주학은 1967년 3월 3일 제주대학교 제주도문제연구소(現 탐라문화연구원)가 설립되면서 연구되기 시작되었다. 제주학은 1996년 12월 1일에 개최된 ‘제주도연구회(濟州道研究會)’ 정기총회에서 학회 명칭을 ‘제주학회(濟州學會)’로 변경한 이래로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 그 후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997년 5월 7일에 제주발전연구원(現 제주연구원)을 설립하였고, 2011년 8월 12일에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올해 2021년 하반기에 제주학연구센터는 (가칭)제주학진흥원(이하 제주학진흥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학 전문가들은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학은 ‘제주다움’, 곧 제주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학은 제주의 과거, 현재를 조명하고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A7%80%EC%97%AD%ED%95%99>(검색일 : 2021년 8월 30일)

2) 고석규, 「서울학 연구방법 시론-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울학 연구 서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33~34쪽; 고석규, 「서설: 남도학(南道學)의 첫 장을 열며」, 『남도학 첫걸음』,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0, 11쪽 재인용.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학의 문제점은 ‘연구 따로, 주민 따로’ 라는 것이다.³⁾ “지역주민과 밀착하고 공공정책과 결합되어 실천력을 확보한다면 지역학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할 것”⁴⁾이라는 전제하에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 전문가는 물론, 제주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학은 ①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③ 지역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인 “제주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지역 연대·시민 지향”과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 글은 호남학 연구기관인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제주학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제주학진흥원이 제주학 전문가, 제주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연구기관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⁶⁾

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배경 및 설립 과정

호남지역에는 옛 선비의 문집 등 20여 만 권, 고문서 15만 점, 고서화·고목판 등을 합쳐 70여 만 점 이상의 사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⁷⁾

1970년대 다산학 연구의 권위자이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故 이을호를 비롯하여 고재기, 안진오, 이상식, 서명원, 박석무, 정환담, 정규철 등은 우리 역사의 한 줄기를 형성해 온 호남인의 사상, 문화, 역사적 업적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30여 년 동안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건립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호남학’을 정립하고, 호남 지역의 학문·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교육·문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 8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각계 인사들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상임공동 대표 박광태 前 광주광역시장·박준영 前 전라남도지사)

3) 김영일은 “부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역사성, 공간성의 조건 및 이의 수렴 등 부산학이 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작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의식으로 파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일,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OUGHTOPIA :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7(1),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라고 지적한 바 있다.

4) 노영순·이상열,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3.

5) 고석규, 「서설: 남도학(南道學)의 첫 장을 열며」, 『남도학 첫걸음』,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0, 15쪽.

6) 와이즈포스트(주)가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과업 기간 : 2020. 4. 9 ~ 2020.09. 5)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할 기능, 주요 사업, 인력 운영, 부서별 업무분장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 글의 2장에서 언술하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사례는 와이즈포스트(주)가 작성한 용역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현행화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7) 「광주·전남 상생과제 1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중앙일보』, 2017년 5월 25일.

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기본 재산과 사무실 미확보 등 재단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은 2014년 10월 5일 광주·전남 상생과제 1호로 채택된 이래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 승인(2017.5.17. 행정안전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7.7.6. 전라남도 조례 제4299호),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2017.8.1. 광주광역시조례 제4950호), 재단법인 설립 등기 완료(2017.9.22.), 이사회 제·규정 의결 및 초대원장 선임(2017.11.28.)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18일 이종범 초대 원장이 취임했고, 이듬해인 2018년 4월 6일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식을 하였다. 현재는 2021년 1월 14일에 취임한 천득염 제2대 원장이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을 이끌고 있다.

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목표 및 미션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목표

1. 호남의 역사유산과 기록문화의 체계적 발굴·정리·보존·편찬
2. 호남권 한국학 연구 활성화와 차세대 전문가 양성
3. 호남인의 역사문화역량을 고취하는 전시·교육 프로그램 확산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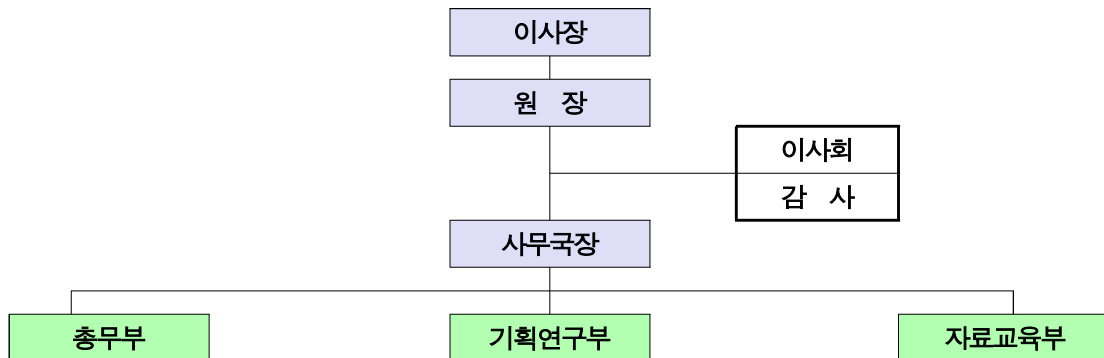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비전



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조직 현황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조직은 이사회, 1국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도표 1>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조직도를 제시한 것이다.

<도표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조직도



먼저,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10명, 감사 2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당연직 이사는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한국학호남진흥원장,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리 감독 부서 실·국장이다. 선임직 이사는 광주광역시 추천 5명, 전라남도 추천 5명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임명한다. 이사장은 관리감독기관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가 2년을 주기로 번갈아 맡고 있다. 이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 제10조에 따라 각각 3년,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음으로, 1국 3부는 원장 아래에 설치한 사무국과 사무국 아래에 설치한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를 말한다. 다음의 <표 1>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부서별 업무 분장을 제시한 것이고, <표 2>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정·현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부서별 업무 분장

구 분		주요 업무
총무부	인사총무	인사, 제규정, 시설관리, 홍보
	회계경리	출연금 기금 및 예산, 각종 계약, 구매
기획연구부	정책기획	사업, 연구 관련 기획 및 평가
	한국학연구	국역서 편찬, 활용방안 개발
자료교육부	자료보존	자료조사·발굴·수집·보존
	교육연수	학술교류, 교육사업

<표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사무국 장	부장	부 서 원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8/14	1/1	1/0	3/1	3/2	3/0	4/9	2/1	
총무부	8/6	1/1	1/0	1/1	1/0	1/0	1/3	2/1	
기획연구부	5/5			1/0	1/1	1/0	2/4		
자료교육부	5/3			1/0	1/1	1/0	2/2		

※ 직종별 분류(2021년 9월 1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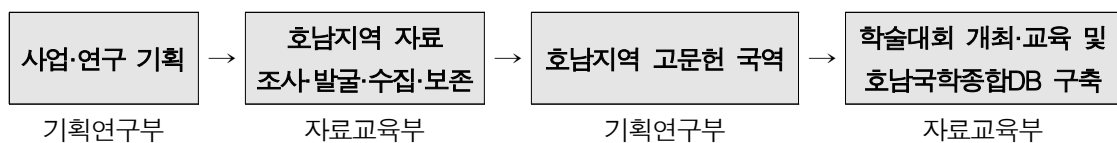
- 정무직(1명) : 원장
- 일반직(5명) : 파견직 공무원 1명(전라남도), 주임 4명(7급 1명 육아휴직('20.9.1~'21.8.30.))
- 연구직(8명) : 책임연구위원 2명(1명 육아휴직('20.5.1~12.31.)), 일반연구위원 6명

총무부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다.

기획연구부는 사업, 연구와 관련하여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또한 기획연구부는 호남지역의 고문헌을 국역·편찬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자료교육부는 기획연구부의 정책 기획에 따라 호남지역에 산재하거나 멸실 위기에 처한 자료를 조사·발굴·수집하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내 제1 수장고, 제2 수장고, 제3 수장고에서 종합적유해생물관리(IPM) 및 훈증 소독을 통해 보존하고, 조사·발굴·수집한 자료 및 기획연구부에서 국역한 한국학자료를 대상으로 학술교류,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호남국학 종합DB를 구축하는 부서이다. 다음의 <도표 2>는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의 업무 흐름을 제시한 것이다.

<도표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자료교육부의 업무 흐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정원은 18명, 현원은 14명(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원장 1명, 총무부 6명, 기획연구부 5명, 자료교육부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다. 사무국장은 <표 2>와 같이 현재 공석인데, 총무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총무부는 총무부장 1명(전라남도 공무원), 일반연구위원 1명, 주임 3명(6급 2명, 7급 1명)이 근무한다. 기획연구부는 책임연구위원 1명, 일반연구위원 3명(기획연구부장 1명 포함), 주임 1명(6급 1명)이 근무한다. 자료교육부는 책임연구위원 1명, 일반연구위원 2명(자료교육부장 1명 포함)이 근무한다. 한편, 연구위원 8명을 직종별, 전공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 현황

기획연구 부	책임	고문서	박사	1	육아휴직
	일반	한문번역	석사	1	
			박사	2	
자료교육 부	책임	문화재	박사	1	
	일반	고문서	박사	1	
		한국사 및 DB구축	박사	1	
총무부	일반	한국문학	박사	1	부서 이동 (기획연구부 → 총무부)
계				8	

위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은 고문서, 한문번역, 문화재, 한국사, 한국고전문학 등 주로 인문학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3〉와 앞서 제시한 〈도표 2〉를 비교하면, 기획연구부의 주요 업무는 호남지역 고문헌 국역이고, 자료교육부의 주요 업무는 호남지역 자료 조사·발굴·수집·보존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성과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역점 추진 업무

다음의 〈표 4〉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역할 기능 및 주요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자료 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헌 조사·수집 · 체계적인 정리 · 과학적·안정적 보존 관리⁸⁾ · 성과 공유 및 확산

8) 다음의 〈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수장고 면적 및 보존 수량(2021년 9월 1일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제1 수장고	100	19,159
제2 수장고	40	6,460
제3 수장고	120	8,512
합계	260	34,131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문헌 국역 보급 • 학술 연구 및 출판 • 고전 국역 역량 전수 • 문화콘텐츠 발굴 	
호남 국학 종합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데이터 구축 • 가공 및 변환(DB 탑재) • 정보화·대중화 활용 	
교육·연구사업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국역 인재 양성 • 전통문화 계승 교육 • 청년유사 양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한국학 전문강좌 • 유관기관 교류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한, 의병, 독립운동 연구 • 호남학 특성화 연구 •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역사인물 선양 사업
호남학 대중화	콘텐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개발 • 남도정신 계승 영상강좌 제작 • 호남학TV 운영
	보급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술 출판 지원 • 학술대회 개최 지원 • 호남학산책 메일링서비스 운영
	호남학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강좌 운영 • 남도정신 강연회 운영 • 호남학 콜로키움 운영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도별 자원별 사업현황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연구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 승인하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 광주광역시 시비보조금 사업, 전라남도 도비보조금 사업, 법인 사업(자체 사업), 수탁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의 <표 5>는 2018 ~ 2021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사업별 자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단위 : 천원)

2018	1,000,000	-	166,000	60,000	-	1,226,000	-
2019	1,000,000	-	100,000	206,900	101,523	1,408,423	14.88
2020	1,500,000	30,000	130,000	825,000	-	2,485,000	76.44
2021	2,324,000	40,000	195,000	874,920	41,500	3,475,420	39.86
합계	5,824,000	70,000	591,000	1,966,820	143,023	8,594,843	-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사업 소개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 : 2021년 호남국학 진흥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원한 이래로 매년 국고보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인 <2021년 호남국학 진흥 지원 사업>으로 호남국학 기초자료 집성, 호남국학 연구, 호남국학 활용 및 확산, 국학진흥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의 <표 6>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호남국학 기초자료 집성	기초자료 수집·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료 조사수집(9,000점), 정리(4,000점) - 기초자료 보존관리 · 보존처리, 복제, 수장고 소독 및 훈증 - 학술대회(1회) 및 기증기탁식 개최(2회) - 자료집 간행(3책)
	고문서 정서 및 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 명가(名家) 소장 고문서 정서 및 역주 · 남원·구례 삭녕최씨 고문서(4,100여매)
	(신규) 공동체 정신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지역 기록유산자료 전수 조사 및 목록화 - 호남지역 향약 자료 조사 및 연구
호남국학 연구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문헌 정리 및 해제(50종) - 문집 구두 및 원문입력(17종, 2,940,600자) - 일기 및 문집 국역(4종 15책)
호남국학 활용 및 확산	호남국학 종합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국학 기초데이터 구축 · 상세해제 5,000매, 원문텍스트 55만자, 원문이미지 20,000컷 등 - 기초데이터 가공 및 웹페이지 운영 · 태그 입력 7,000매 - 전복권 고문헌 조사 및 DB화(1,000점)
국학진흥협의체 구성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심층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서 분류(안) 마련 심층포럼

나) 광주광역시 시비보조금 사업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금사업인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 사업(X다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광주다운 역사인물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2021년에는 해당 사업의 연차별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0년에는 <광주전남 31운동 재판 판결문 번역사업>을 수행하여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 31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의향(義鄕)’의 고장, 광주 31운동의 성과와 역사적 가치를 광주시민에게 알림으로써 광주시민의 자부심,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국역자료집의 발간을 홍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2021년 3월 1일) 및 1층 로비(2021년 3월 2일 ~ 12일)에 사진(10점), 판결문 이미지(10점)를 전시하였다.

다) 전라남도 도비보조금 사업

전라남도에서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원한 이래로 매년 도비보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인문학 기반 및 역사자원 활용 사업>으로 2018년, 2019년에는 인문학 기반 소재 발굴을 위한 사료 조사 및 집필, 스토리텔링, 인문학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약무호남 시무국가 등 관련자료 조사 해석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남도의병사 발간 사업>, <『진중일지』Ⅱ 권(토지주택박물관 소장) 번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도정신 계승 확산 사업>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남도 정신문화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말 COVID-19 발생 이래로,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온라인 강좌인 <남도정신문화 사이버 강좌>를 제작하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유튜브 채널인 ‘호남학 TV’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광주전남 31운동 재판 판결문 번역사업>으로 2020년에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을 발간하였다.

<Blue-Tourism 역사문화자원 구축 사업>으로 2020년에는 『남도 바닷길 이야기』를 발간하였고, 2021년에는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대학(원)생 대상 마한학술경연대회 개최, 고대 해상 마한의 바닷길 이야기 웹툰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라) 법인 사업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체 사업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체 사업(법인 사업)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표 7>는 2021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법인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호남학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인문학 분야 전문가 원고 메일링서비스(매주 수요일, 1편) - (2021년 신설) 호남인문학 주제 일반인 원고 당선작 메일링서비스
광주전남 31운동 재판판결문 번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 31운동 재판판결문 국역집 발간

한국학 전문강좌	- 연구위원의 연구역량 강화
호남한국학 열린강좌	- 호남학 주제 인문교양강좌 개최 지원
전통문화시설(서원·향교) 청년유사 양성 강좌	-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고문헌 국역 강좌	
열린자료실	- 기증기탁 도서 보관 및 일반인 대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1년 남은 기간에 <기획과제 기초조사>, <호남한국학 출판지원 사업>, <호남한국학 학술대회 지원>, <호남한국학 콜로키움>, <남도정신 영상강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 수탁 사업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외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수탁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2019년에는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자료 학술조사 연구 용역>, 곡성군 <곡성군 농사 일기 원문입력 용역>,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도학 첫걸음 개발 용역>, 전라북도 고창군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사설(춘향가·심청가·토별가) 영인본 발간 용역> 등 4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주한 <김봉호 일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 한계

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청사의 부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올해로 출범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청사가 없는 상태이다.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의 3층, 4층에 입주해 있다.

3층에는 일반연구위원 개인 연구실(7개실)⁹⁾, 사진촬영실, 제3 수장고, 열린자료실(도서관)이 있고, 4층에는 원장실, 사무국장실, 총무부장실, 총무부 사무실, 전산실, 책임연구위원 개인 연구실(2개실), 제1 수장고, 제2 수장고, 자료정리실, 대회의실이 있다.

향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행정동, 연구동, 수장고, 전시실, 강의실 등을 갖춘 청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9) 이 글의 2.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5월 4일에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부서 이동이 있었다. 이때 총무부로 부서 이동한 일반연구위원은 현재 4층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일반연구위원이 사용한 3층 연구실은 기획연구부로 부서 이동한 주임이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한국학호남진흥원 3층에 개인연구실 7실이 있지만, 3층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 일반연구위원은 6명, 주임은 1명이다.

나) 호남 자료에 관한 교육, 스토리텔링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미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8년 개원 이래, 조사수집하거나 기증기탁 받은 호남 고서고문서 자료에 대하여 정리보존, 국역, 학술대회 개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호남 자료에 대한 교육, 문화콘텐츠 원형 발굴은 여전히 미진하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총무부 일반연구위원 1명을 제외하고, 연구사업을 운영하는 연구인력으로 책임연구위원 1명(자료교육부 1명), 일반연구위원 5명(기획연구부 3명, 자료교육부 2명), 기획연구부 책임연구위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1명(기획연구부 1명) 등 총 7명이 있다.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향후 한문교육원, 문화콘텐츠 사업을 담당할 연구 인력을 양성하거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 연구 영역의 외연 확장, 학제적 연구 필요 및 인력 부족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호남 고서고문서에 관한 조사수집, 국역, DB 구축 사업은 기간제 계약직 7명, 참여연구원 80명 등 87명을 선발하여 수행하는 실정이다. 다음의 <표 8>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2021년에 활용하는 정원 외 인력 현황을 사업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초자료 수집·보존(자료교육부)	1(일반)	4	3
고문서 정서 및 역주(자료교육부)		-	6
공동체 정신문화 활성화 중 향약자료 조사·연구(자료교육부)	1(책임)	-	12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기획연구부)	2(일반)	-	42
호남국학 종합DB 구축(자료교육부)	1(일반)	3	17
계	5	7	80

위의 <표 8>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계약직 근무자는 <기초자료 수집·보존>, <호남국학 종합DB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각 사업별 참여연구원은 적게는 3명(<기초자료 수집·보존>), 많게는 42명(<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연구위원보다는 정원 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학제적 접근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연구위원의 전공은 주로 고문서, 한문번역으로 한정되어 있다(<표 3>). 무엇보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 중 지역사 전공자가 부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2020년에 추진한 <광주역사인물선양 예비사업>, <마한문헌자료집성 기초조사>를 각각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사단법인 호남사학회에 위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내·외부에서는 자연지리학, 근대생활사, 정치사회사, 국제관계사, 의병사, 독립운동사, 실학, 민속학, 종가, 음식, 미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는 일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라) 개별 연구위원의 연구실적 저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들은 한국학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원내 연구 1건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원내 연구는 “호남진흥원 소속 연구원이 호남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의무 연구사업”¹⁰⁾을 말한다.

연구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하여 연구사업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년도 연구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고려하여 원내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지한다. 연구위원은 공지된 과제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연구과제로 선택하고, 연구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공지한 과제의 수행이 어려운 연구위원은 호남진흥원 소장 자료나 당해년도 사업내용과 연관된 과제를 임의로 선정하여 2월 1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신청한다. 연구사업운영위원회는 신청된 과제를 심의하여 연구수행 개시연도 2월 20일까지 당해년도 원내연구 과제를 1차 선정·공지한다. 1차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위원은 공지 후 7일 이내에 연구사업운영위원회에 구두로 의견을 제기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 기간이 경과하면, 연구사업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원내연구 과제를 원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하고 이를 2월말까지 공지한다.

원내 연구의 연구기간은 연구가 개시된 연도의 차년도 말까지이며, 연구위원은 해당 기간 내에 연구성과물 생산을 완료하여야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적은 연구위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된다.

이 글의 주9와 같이, 현재 총무부 소속 일반연구위원 1명을 제외하고 기획연구부 연구위원 4명, 자료교육부 소속 연구위원 3명은 개인 연구실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연구위원은 연구,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연구 수행보다는 행정 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표 9>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 7명의 입사 후 2021년 8월까지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0)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용어 정의) 2호.

(단위 : 편)

위의 <표 9>와 같이,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 중에는 입사 후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연구위원이 있기도 하고, 적게는 1편, 많게는 6편을 게재한 연구위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의 논문 게재 실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연구위원들은 근무 시간에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위원이 근무 시간 외 점심시간, 퇴근 이후 시간, 주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논문 게재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연구위원의 연구 수행 시간 또는 연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연구년 제도를 두고 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인사규정」 제75조(자율연구년) 1항에 “원장은 연구직 및 직원의 연구수행, 강의, 행정참여 등의 근무부담을 경감하여 전문성 개발을 통한 학문발전 및 본 호남진흥원에 보다 유익한 공헌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위원은 규정에서 보장한 자율연구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개원 이래 자율연구년을 실시한 적은 없다.

마) 기관 학술지, 연차보고서, 소식지 미발행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기관 학술지, 연차보고서, 소식지의 발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부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2019년, 2020년에는 <청년한국학 혁신인재 양성 사업>(주소지가 광주·전남인 국역 전공자의 국역 활동 지원), 2019년 <한국학 전문강좌>, 2020년, 2021년

11) 이 글의 <표 9>에 제시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별 논문 게재 실적 건수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누리집에서 개별 연구위원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전통문화시설(서원·향교) 청년유사 양성 강좌〉, 2021년 〈고문헌 국역강좌〉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 말 〈한국학 전문강좌〉의 개최를 앞두고,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을 완료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예비 전문가들에게 수료증 또는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재)한국학 호남진흥원은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비 전문가들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자격 인증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을 완료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학문후속세대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주며, 학문공동체에서 수료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주학과 제주학진흥원의 미래를 위한 제언

제주학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¹²⁾을 말한다.

제주학의 정체성 확립, 제주학진흥원의 설립·발전을 위해 이 글의 3장에서는 제주학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가.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과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아카이브 관리, 교류·정책·교육 사업, 역사편찬 연구 사업, 제주어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사업성과, 업무협약 체결 실적, 제주학대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실적 및 제주학 총서, 연구보고서, 제주역사 자료 총서, 기타 편찬 도서의 발간 실적은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인 『제주바투리』 2020년 창간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³⁾

나. 제주학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길

1) 주력 사업을 통한 제주학진흥원 정체성 찾기

현재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 소개된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직 및 구성원을 살펴보면, 연구

12) 와이즈포스트,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0, 119쪽 발췌.

13) 「제주학연구센터 소개」, 『제주바투리』 2020년 창간호, 제주학연구센터, 2020, 8~10쪽 및 18~21쪽.

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업별을 살펴보면, 교류·교육·정책연구 및 사업은 1명, 역사편연구사업은 3명, 아카이브 관리·민속분야연구사업은 2명, 제주어 연구사업은 6명이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별로 배치된 연구원의 수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주력 사업이 제주어 연구사업에 비추어진다.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향후 제주학진흥원이 추진해야 사업으로 다음의 15가지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학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2) 제주학연구의 원천자료의 수집·보존 및 활용

제주에는 제주학 연구를 위한 원천자료가 풍부하게 있다. 예를 들면, 해양문화의 보고인 제주바다, 유네스코(UNESCO)가 인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역,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및 칠머리당연등곳, 제주 유배문화, 제주문학(제주기행문학, 해녀시조, 해녀수필, 해녀사진에세이), 사진, 동영상, 디지털 자료,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와 같은 외국인 저술, 해외 제주학 자료 등이 그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현재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제주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해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10개 분야의 자료, 단행본,

14) 와이즈포스트,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0, 119쪽 발췌.

연구물, 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학을 정립하고 제주학 자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진흥원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제주학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학진흥원에서 조사·수집이나 기증·기탁을 통해 모은 고문헌은, 수장고 시설을 갖추고 종합적유해생물관리(IPM) 및 훈증 소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 또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면, 이를 영인복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3) 연구원의 연구능력 증진

『제주바투리』 2020년 창간호에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남춘 교수는 “센터의 연구진이 자체 연구와 사업에도 벅찬데, 지자체에서 밀려오는 다른 사업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어졌다. 센터 연구원의 본분은 연구와 행정을 반반 함께 담당해야 한다. 1년에 한 편 정도의 연구 성과가 나오도록 연구원을 배려하면 좋겠다.”¹⁵⁾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연구원의 연구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것을 권한다.

첫째,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논문 발표비,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다.

둘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연구년 제도를 시행한다.

셋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과 같이, 연구사업운영위원회,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학을 주제로 하는 원내 연구과제 1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원내 연구과제나 원내 연구과제 외의 연구에 대해 연구원 간 상호 피드백을 하고 연구 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 또는 넉 달에 한 번 연구원 간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학술발표회에 토론자로 초청하는 일도 권한다.

넷째, 외부 전문가 중 제주학을 포함한 지역학,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그의 연구방법론, 연구성과, 연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제주 소재 연구기관 및 제주 밖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지원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에 설립한 이래로 국내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언론단체 및 해외 대학의 연구센터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제주학회,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문화방송(제주MBC), KCTV, 민요학회, 한라일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광대학교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제주의소리, 강원학연구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KCTV제주방송, (사)제주어연구소,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일본가고시마대학 국제도서교육연구센터,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등이다.

15) 허남춘, 「재단법인 독립이 우선적 과제」, 『제주바투리』 2020년 창간호, 제주학연구센터, 2020, 6쪽.

제주학진흥원 개원 이전에 기존에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나 공동사업을 검토·점검하고, 이들 기관과 상생하며 제주학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MOU를 맺은 협약기관 연구자들과 ‘찾아가는 제주학’ 교재를 제작하고, 제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주학진흥원 연구원, 협약기관 연구자로 제주학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실제 제주학 강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로써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밖 시·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학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학연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교육부 BK사업단, HK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학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

5) 열린 제주학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충남학의 이해』 I (2014), 『충남학의 이해』 II (2017), 『청소년을 위한 충남학 스토리텔링 북-또 만나요 충남』(2018), 『알기 쉬운 대전학-과거, 현재, 미래의 共存』(2017), 『남도학 첫걸음』(2020) 등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치단체, 대학교 및 초등학교(충남 해당)와 연합하여 시·도민이 지역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에도 제주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누리집(<http://jiles.or.kr/index.htm>)을 살펴보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역학 강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학진흥원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주학 강좌’ (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각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의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학 강좌를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 탐라문화제 주간에 제주방언과 관련하여 ‘제주방언 겨루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방언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반인 대상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제주학진흥원에서 연구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개관한다면,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Ⅲ) 서버를 사용하고, 도서관 서지DB 구축, MARC 작업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6)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

제주학진흥원에서는 제주의 자연, 역사, 인물 등을 주제로 하여 영상강좌를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강좌를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학 원천자료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발굴하여 영화 <이재수의 난>(1999), 정해나의 만화 <탐나는도다>(2009), MBC드라마 <탐나는도다>, <맨드롱 뎀뎀>(2015) 등과 같은 대중적 콘텐츠 제작도 필요하다.

4. 맺음말

지역학은 연구자의 손을 떠나면 대중의 것이 추세이다. 향후 제주학진흥원의 수집 자료, 연구성과, 콘텐츠가 대중이 참여하는, 열린 제주학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규정집』

고석규, 「서설: 남도학(南道學)의 첫 장을 열며」, 『남도학 첫걸음』,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0.

김영일,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OUGHTOPIA :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7(1),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

노영순·이상열,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3.

와이즈포스트,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0.

허남준, 「재단법인 독립이 우선적 과제」, 『제주바투리』 2020년 창간호, 제주학연구센터, 20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대전평생교육진흥원(<https://www.dile.or.kr/MainHome.do?cmd=indexMain>)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http://jiles.or.kr/index.htm>)

제주학연구센터(<http://www.jst.re.kr/main.do>)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https://www.jntle.kr/main>)

충남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ile.or.kr/>)

(재)한국학호남진흥원(<https://www.hiks.or.kr/>)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DB(<http://db.hiks.or.kr/>)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열린자료실 도서검색(http://152.99.134.217/Ksearch/search/searchDetail_d.jsp)

제주학진흥원의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제언

- 한국학진흥원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

박 경 환 (한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목 차

- I. ㅎ한국국학진흥원 일반현황
- II. 한국국학진흥원 2021년 주요사업
- III. 한국국학진흥원 안동학 사업
- iv iv iv iv IV. iv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제5회
제주학대회

I. 일반현황



Mission 국학을 진흥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Vision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
- 국학자료의 보존 및 연구·보급·확산의 중심기관

설립목적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과 국학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설립

경영철학 세계화, 현대화, 실용화, 정보화, 대중화

- 설립근거**
- ✓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2001년 법인 감독권 경북도 미관)
 - ✓ (재)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3071호)
 - ✓ (재)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
(안동시 조례 제1321호)

- 주요사업**
1. 국학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정리 보존사업
 2.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국학자료 및 학술 관련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보급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5. 전통인문정신 연수사업
 6. 학술 및 연수 관련 수탁사업
 7.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9. 그 밖에 국학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35

2007. 05. 03
인문정신연수원 개관
(2010. 12. 24. 강익동 증축)

2021. 09. 01
국학자료 582,271점

4/35

개편 조직도(안)



5/35

I. 일반현황

인력현황

(단위 : 명, 2021.05. 기준)

구분	총계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공무직
정원	82	1	2	17	25	21	16
현원	73	1	2	17	25	19	9
결원	9	-	-	-	-	2	7

○ 정무직 : 원장 (비상근)

6/35

I. 일반현황

2021년 예산(A+B)

42,154백만원

일반회계 (A)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	2021년 예산
일반회계	계	40,851
운영비	소계	7,100
	경상북도	5,000
	안 동 시	1,800
	자체사업	300
	반납금 등	131
사업비	소계	27,540
	문화체육관광부	19,729
	문화재청	318
	경상북도	2,283
	안 동 시	889
	기타 지자체(이아기할머니)	4,321
	이월 사업	6,080

특별회계 (B)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	2021년 예산
특별회계	계	1,302
자체	인문정신연수원 운영	1,000
수탁사업	소계	302
	고전번역원 지원	195
	수탁연수	100
	이월 사업	7

7/35

I. 일반현황

국학자료 및 문화재 소장 현황

(2021. 8월말 기준 / 점)

- 국학자료 수집 현황
총 582,271점

계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582,271	182,865	321,944	66,630	1,329	5,506	3,997

- 지정 문화재 소장 현황
총 66건 70,689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국보	보물	지방유형 문화재 등
<유교책판> 64,226점	<한국의 편액> 550점	『장비록』 1건 1점	19건 1,855점	41건 3,355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52점	<만인의 창원, 만인소> 2점			

8/35

I. 일반현황

국학진흥원 시설현황



- 부지면적
68필지 264,722㎡ (80,078평)

- 시설현황
8개동 30,805㎡ (9,319평)

구분(건물명)	규모(면적)
① 흥익의 집(본관)	지하1층, 지상4층 (12,589㎡)
② 유교문화박물관	지하1층, 지상4층 (4,247㎡)
③ 장판각	지상2층 2개동(1,402㎡)
④ 인문정신연수원(강의동 포함)	지하1층, 지상4층 (9,111㎡)
⑤ 별 관	지상2층 (1,485㎡)
⑥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지하1층, 지상2층 (1,971㎡)

9/35

2021년도 주요사업 방향



10/35

1. 국비사업 18건 20,185백만원



국학자료 수집 보존
사업비 : 1,256백만원

- 국학자료 조사 수집(2만건 이상 지속 수집)
- 목록집 12종 발간
- 수장고, 장판각 밀폐 훈증자료 보존처리 등



유교목판 조사 연구
사업비 : 110백만원

- 유교목판 조사 연구
- 국제목판보존연구협의체(IAPW)운영 국제학술대회 추진
- 목판연구정기간행을 발간(2책)



국학자료 심층연구
사업비 : 105백만원

- 경당일기 연구포럼
- 풍산류씨 지산고택
- 간찰연구 포럼

11/35

1. 국비사업



전통이야기 소재 국역
사업비 : 326백만원

- 국역서 교열 및 발간(7종)
- 일기류 및 국학자료 국역(4종)



국학자료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비 : 817백만원

- 조선시대 일기자료 DB 구축 및 유교넷 재 정비
-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발
- 세계기록유산 유교책판 아카이브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및 공모전
사업비 : 174백만원

-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 스토리텔링 창작콘텐츠 공모전

12/35

1. 국비사업



기탁홍보 및 전통문화보급
사업비 : 191백만원

- 특별전 개최 3회, 도록발간 2종
- 전통문화박물관협의체 운영
- 박물관 교육학교 운영 및 직무교



민간기록문화 활용 청년포럼
사업비 : 120백만원

- 포럼운영 : 강연(2개), 토크콘서트
- 청년캠프 : 해외탈방단 구성 미추 지역 한국학연구센터와 포럼 운영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및 확산
사업비 : 40백만원

- '끈기' '어울림'의 해외 전파를 위한 책자 발간(2종 6책)
- 영 일 중 3개 국어로 번역, 20개국 이상 배포
- 문화유전자 공감캠프 운영(2회)

13/35

1. 국비사업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신용기 특유산 국역)

사업비 : 894백만원

- 인력채용(총 47명)
- 초급청년번역가 4명, 예비청년번역가 12명,
교감표점 2명, 성과관리 2명, 청년인턴십 27명
- 국학자료 국역 및 원문 DB 입력·교감표점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국학자료 보존 및 디지털화)

사업비 : 1,606백만원

- 인력채용(총 78명)
- 소장 고도서, 고문서 12,000건 디지털화
- 고도서 스캔, 이미지 촬영
- 고도서 목차 입력 및 해제 작성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사업(신규)
(근대 기록문화 수집 활용)

사업비 : 1,000백만원

- 기록유산 조사원 선발·양성
(50~60대 실버세대, 500명)
- 전국의 근대 기록자료 조사·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10만 건

14/35

1. 국비사업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사업비 : 14,623백만원 (국비 10,236, 광역지자체 4,387)

- 활동인원 : 4,130여 명
- 신규 선발 : 500명 선발(56세부터~74세까지 여성 어르신)
- 활동비 및 신규자 교육비 지원

15/35

2. 도비사업

17건 3,165백만원



영남선현문집번역
사업비 : 300백만원

- 발간(4종) : 『모산집』, 『우계집』, 『홍와집』, 『후계집』
- 국역(13종)
 - 『신아집』, 『육천집』, 『임봉집』, 『충재집』, 『활재집』 (계속 5종)
 - 『귀암집』, 『나은집』, 『노암집』, 『노우집』, 『노환집』, 『명고집』, 『치재집』, 『취사집』(신규 8종)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사업비 : 60백만원

- 리더과정 운영(40명 x 4회, 80시간)
- 교육운영위원회(3회, 12명)
- 수료생 워크숍(1회, 80명)



국학전문인력양성(한문교육원 운영)
사업비 : 881백만원 (국비 650, 도비 231)

- 한문교육원 연수과정 60명
- 연구과정 10명
- 번역실습과정 운영

16/35

2. 도비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활용
사업비 : 50백만원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협의회 워크숍
-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자 발간
-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실무자 회의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
사업비 : 50백만원

- 경북의 정신 기반 프로그램(강의, 현장, 체험) 운영
-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역사와 문화 체험



경북의 백과사전 및 역사서 국역
사업비 : 50백만원

- 국역서 발간(1종) : 『동국십지』
- 국학자료 국역(2종) : 『소대명산행적』(계속), 『동사찬요』(신규)

17/35

2. 도비사업



국학연구 국제학술지 사업
사업비 : 80백만원

- 민간기특유산을 대상으로 한 국학분야의
연구성과를 수렴
- 영문학술지 발간 자문위원회 구성
- 영문학술지 발간(연 1회) :
The Classical Korean Studies 발간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 500백만원

- 노후 화장실, 지하주차장 개보수,
- 노후 네트워크시스템, CCTV 시스템 교체
- 수장고 향온습습기 교체(4대)



경북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전시
사업비 : 50백만원

- 찾아가는 전시 개최(2회)
- 전시 교육프로그램 진행

18/35

2. 도비사업



증가제례음식총서 발간
사업비 : 80백만원

- 증가제례음식 총서 6~9권 발간
(4년간 총 21권)



증가포럼
사업비 : 50백만원

- 학술대회 및 증가문화 전시·내방
가사 낭송



따뜻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
사업비 : 1,144백만원
(국비 800, 도비 344)

- 신규선발 30명
- 활동 323명
- 유아교육기관 900여 개소



냉난방기 고효율설비 교체
사업비 : 440백만원
(국비 176, 도비 264)

- 노후 냉난방설비기 17대
- 실내기 132대 교체

19/35

3. 안동시비 사업 12건 938백만원



안동학 연구
사업비 : 110백만원

-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학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개최
- 국제학술교류 "기록문화유산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안동의 역사인물 문집 100선 번역
사업비 : 250백만원

- 국역서 교열 및 발간(2종)
『조성당집』, 『임여계집』
- 국학자료 국역(10종)



역사인물 선양사업
사업비 : 30백만원

- 안동지역 역사인물 가운데
- 학술대회 개최
- 조선시대 1명, 근대 1명

20/35

3. 안동시비 사업



국학아카데미
사업비 : 30백만원

- 주제 : 안동의 정신적 유산과 계승
- 총 20강 운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및 활용사업
사업비 : 150백만원

- 내방가사 아카이브 구축
- 만인의 청원, 만인소 다큐멘터리 제작
- <한국의 편액> MOW 등재기반 조성



안동팔경 및 구곡 문화 아카데미
사업비 : 50백만원

- 연수운영 : 6회*40명
- 성과보고회 1회

21/35

3. 안동시비 사업



안동 세계유산 체험연수
사업비 : 36백만원

- 서포터즈 발대식 : 서포터즈(40명), 세계유산 관계자 및 안동시민(60명) 등
- 세계유산 체험연수 : 4회*40명
- 세계유산 세미나 : 세계유산 관련 세미나 1회



안동의 문화재 활용 및 홍보 전시 (신규)
사업비 : 60백만원

- 안동의 문화재 자료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전시 개최
- '안동의 보물'도록 발간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유교책판)
사업비 : 300백만원
(국비 150 지방비 150)

- 유교책판 순회 전시를 제작 및 순회 전시
- 유교책판을 활용한 전문가 연수

22/35

3. 안동시비 사업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한국의 서원)
사업비 : 246백만원 (국비 123, 지방비123)

- 글로벌 세계유산 탐방
- 가족 서원 캠프
- '선비처럼' 영상콘텐츠 제작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신규)
사업비 : 90백만원

- 세계기록유산 학생 영상 제작캠프 2회

23/35

4. 특별회계



인문정신연수원 운영
사업비 : 1,500백만원

- 홍보·관측 마케팅 SNS홍보 및 관공서 등 홈페이지 홍보
- 연수시설 노후에 따른 일부시설 보완 작업추진



전통인문정신연수
사업비 : 200백만원

- 선비정신을 비롯한 한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성함양 프로그램 제공
- 수요자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전통과 인문이 결합된 연수 운영

24/35

1. 안동학 연구사업 연혁

1) 안동학 태동기(2001~2003)

-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한국국학진흥원·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공동연구 협정 체결 (2001. 4. 2)
- '안동학 정립'을 주제로 제1차 워크숍 개최(2001. 5. 17~20)
 - 안동대학교에서 안동의 가문과 혈통, 안동의 역사, 안동 문화관광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 '안동학 연구의 국제화'를 주제로 제2차 워크숍 개최(2001.11.19.~22)
 - 하와이대학에서 제1차와 동일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
- 학술지 <안동학연구> 창간호 간행(2001.12. 20)
- 안동문화 소개 <안동역사문화기행> 발간 (2002. 1.15.)/영문, 중문, 일문

25/35

1. 안동학 연구사업 연혁

1) 안동학 태동기(2001~2003)

- 공동연구단 안동지역 현장조사 3회 개최(2002. 5. 20 ~10.10)
- '안동학연구의 국제화' 주제로 제5차 워크숍(2002.11.10.~14)
 - 하와이대학에서 안동의 연회, 음악, 방언에 관한 발표와 토론
- 안동학 국제학술대회 개최(2003. 11.6~7)
 - 주제: 국학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지역학 연구
 - 한중일의 대표적 지역학 사례 소개를 통해 안동학 연구방향 설정

26/35

1. 안동학 연구사업 연혁

2) 안동학 착근기(2004~2009)

- 중국 안휘대학 휘학연구중심과 공동연구 추진(2004. 3.~2010.10)
 - 주제: 안동과 휘주 지역의 역사문화 비교연구
 - 2010년까지 7년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한 현장조사와 학술발표회로 운영
 - 양 지역 대표적 동성촌, 고문서, 서원, 역사인물 등에 관한 비교연구
 - 연구성과는 양 기관 학술지 게재, 단행본 발간
- 안동문화 학술강연회 개최(2005.11.29.)
 - 안동시 '안동, 한국정신문화 수도' 정책화 지원 학술강연

27/35

1. 안동학 연구사업 연혁

2) 안동학 착근기(2004~2009)

- 중국 공자연구원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2006. 1.~2008.5)
 - '한중 유교문화의 전승과 보존 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 안동학포럼 개최(2009. 7. 8)
 - 안동학 연구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관련 발표토론

28/35

1. 안동학 연구사업 연혁

3) 안동학 발전기(2010~)

- 중국 송명리학연구중심과 공동연구 추진(2010.10.~2019.10)
 - 주제: 도산구곡과 무이구곡 문화 비교연구
 - 매년 양지 역 교차방문 조사와 학술발표회 형식으로 진행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와 안동학 공동연구 추진(2011.10.~2012.12)
 - 상호 방문 학술대회 개최
 - 북미지역 한국학 및 지역학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안동학 확산 협업
- 안동학 확산 지역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술행사(2010~2021)
 - 세미나, 강연회, 집담회 등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참여 행사 개최

29/35

2. 안동학 확산보급 사업

1) 안동학 및 안동문화 관련 도서 간행보급

- 안동학 관련 학술연구서 간행 보급
- 안동문화관련 대중 총서 간행보급(2016~)
 - '안동문화100선' 총서 기획 간행
- 안동지역 문집 번역 간행 (2017~)
 - '안동 역사인물 문집 국역 총서' 기획 간행

2) 안동학 관련 교육연수

- '안동시민을 위한 국학아카데미' 운영(2006~)
- '안동사랑 청년캠프' 개최(2013~2020)

30/35

제주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제주학 관련 학술지 간행
 - 제주학 관련 연구성과를 담은 정기 학술지 창간
- 제주학 관련 고문헌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국역
 - 옛 기록 속 관련 자료는 제주학 연구의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
 - <승정원일기> 외에 제주목 관찬자료, 문집, 간찰 등에 산재한 기록에도 주목
- 학술교류 다각화, 내실화를 통한 제주학의 위상 제고
 - 비교연구의 가치가 큰 국내외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 확대
 - 인적교류, 자료교환, 일회성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넘어선 장기적 공동연구 추진

31/35

제주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제주학 연구 성과의 대중화

- 제주문화 관련 대중강좌,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온라인 강좌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서비스
- 제주를 대표하는 공간, 의례, 인물, 사건 등에 관한 대중적 소개 총서 간행보급

○ 제주학 외연의 확대

- 민속 언어, 역사 등 지역학의 일반적 접근법을 문학, 회화 등 분야로 확장

○ 제주학 연구 및 진흥 관련 재원의 다원화

- 문체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공모사업, 출향인사와 기업 등을 통한 재원확보

32/35

제주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제주학 연구 지원 방식의 다각화

- 제주학 관련 연구비, 출판비 지원 외 방문연구 지원도 필요
- 제주학 연구는 어떤 지역학 보다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문예 분야의 체류 창작 지원 프로그램 벤치마킹
- 진흥원 설립 후 연수시설 구비되면 제주학 연구와 확산에 효과적인 지원방안 될 수 있음

○ '치유의 제주학'에도 관심을

- 전근대, 근현대에 걸친 제주의 특수한 역사경험에 대한 직시와 성찰, 치유가 제주학의 기능과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
- 과거의 진실 구명, 현재적 치유, 미래의 화해 제시할 제주학에 대한 기대

33/35

감사합니다



■ 토론문

토론 1 재단법인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토론 2 제주 미래의 상상력 고취, 공공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토론 3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토론 4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에 관한 제언

토론 5 제주학 진흥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재단법인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제주연구원 부설 제주학연구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제 독립적인 재단법인(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는 아카이브, 조사연구, 연구지원 및 발간사업 등 많은 일을 해왔다. 아울러 직원 및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재단 설립 취지는 공감하고 싶다. 하지만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처럼 전국단위 혹은 문헌분야의 재단과 견주어 볼 때, 제주학진흥원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학으로 독립적 지위의 연구재단 추진은 처음인 듯하다.

제주학이 제주정체성확립을 위한 대명제의 범주에 대해 생각 해 볼 일이다. 물론 다양한 연구분야가 있지만 제주의 역사성이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학 연구자는 매우 적은편이다. 조사 혹은 연구실적도 미진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제주를 포함한 국내 대학 혹은 국외 유학에서 배출된 전문연구자들이 제주연구에 몰두 할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 연구소(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될 경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재단 설립근거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법률제정> 제 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를 내세우고 있다. 주관부서는 문화재청이다. 제주도는 세계유산본부가 주체인 것으로 보인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주 미래의 상상력 고취, 공공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들어가며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고, 더 진전된 제주학 지식 생산과 확산의 기반으로 제주학진흥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에서 공공의 출연기관 하나를 설립하기까지 오랜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의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정책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R&D 기반, 그 중에서도 인문역사 연구 지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우선순위에서 시급하지 않고, 주민 삶의 문제들과 직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제시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공공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과 그것이 제주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의 역할 정립

● 공공기관으로서 제주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오늘 기초발제와 여러 전문가의 발표에서 제주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구체적인 연구와 사업들 대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도 출연 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 중간적 위치를 가지고, 또한 기관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적 기여를 고민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문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그 학문을 통한 제주사회와 제주도민에 대한 기여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학진흥원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전에 제주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 지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잘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 고치를 위한 역사 연구 투자 중요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역사문화 이론가였던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서구 사회에서 ‘역사’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 개념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개념에서 ‘지속되고 연결되는 프로세스(과정)’의 개념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역사 개념의 변화사를 통해서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모양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1976)라면서 역사 연구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였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제주학진흥원은 제주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모양의 미래에 대해, 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풍부하게 가르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역사 연구가 과거의 이야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제주인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제주와 제주인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 그러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지적 활동의 보고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위한 제주학 연구 투자는 그 어떤 현재적 현실 사안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 의미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공공정책 역사 연구 필요

이를 위해 진흥원의 비전, 핵심 역할과 사업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의미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연구사업들에 대해서는 발표자들께서 구체적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첨언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제주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 지평을 확립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공 부문은 현재 제주의 서비스산업 분야 중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고, 정책의 선택이 사회와 도민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책의 역사를 단순 기록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록 사료에 대한 2차 분석, 즉 정책의 태동 배경과 사회적 영향들에 대해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역사 기록에서 배제되는 삶 연구 등, 제주 공동체의 다양성 드러내기과 이를 위한 폭넓은 연구 협력과 교류 필요

● 여성, 이주민, 외부와의 관계 등 다양한 미시 역사 드러내기

제주학진흥원에서의 제주 역사 지식 생산은 공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역사적 왜곡이나 배제가 없는지 자기성찰적(self-reflexive) 준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주에는 여성의 섬, 강인한 제주 여성, 여성 신화, 해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여성, 여성과 연관된 문화적 상징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에 대한 역사 기록이 얼마나 있는지,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주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읽힐 것인지, 그 미시적 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공론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2020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과제인 “제주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지역학 연구원들과 제주도내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물 중에서 ‘여성’ 관련 연구 실태를 간략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학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 예컨대 아동, 청소년, 학생, 여성, 이주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 그들의 역사와 미래 방향에 대해 연구물과 그 의미들을 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도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발표자들께서는 진흥원의 역할로서 ‘제주다움’, ‘제주의 정체성’, ‘제주 공동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누구의 관점에 보는 제주다움이고, 정체성인지, 미시적 역사들과 제주공동체와의 관계성에 대한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주제의 선택 자체가 이미 사회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기준이자 그것이 곧 역사가 되기 때문에, 진흥원이 연구 주제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시각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혹은 기존에 판에 박힌 시각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냄에 있어서 기록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자기성찰적 준거를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미시적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기에, 제주학진흥원은 도내외 여러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연구자 및 연구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공동 연구 주제와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제주학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연구는 시대의 부침에 의해 등장했다가 소멸되는 영역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 연구자의 확보, 연구 공간, 그리고 지속적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 연구자 구성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역사 인문학자 외에도 균형 있는 비교 역사 시각을 가지고 1차 사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미시 역사 연구가 가능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등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 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나날이 중요해지는 사료의 디지털화와 아카이빙을 위한 전산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구심점으로서 진전된 제주학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아낌없는 공공정책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양정필(제주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제주대학교 사학과 양정필입니다.

발표문을 보내줘서 받아 보았지만, 담당자 분께서도 언급했듯이, 특정 발표문에 대한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주학연구센터의 이용자로서 또 제주도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제주학연구센터가 한 단계 도약해서 (가)제주학진흥원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토론 취지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토론은 우선 지역 단위로 여러 ‘-학’ 이 나오고 있고, 관련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의의를 우선 짚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활동해 왔는데 지금까지 업적과 그림에도 아쉬운 부분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한 단계 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몇 자 적고자 합니다.

1. 지역학의 필요성

제 연구 주제가 개성 지역인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운 좋게 고향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어서 개성에 더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역 대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갖는 장점과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앙사가 중요하고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사가 8도의 역사를 모두 담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근대는 물론 현재도 각 지역은 나름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가 켜켜이 쌓여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조선시대 개성만 해도 그 역사는 중앙사와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제주도 역시 개성에 못지않은 언어적, 역사·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과 제주도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남도 그렇고 안동도 충분히 자기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초중고 역사 교과서로 대표되는 중앙사는 특색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각 교육청별로 해당 지역사 연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 연구는 개별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 비전 하에 조직적으로 수행될 때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이후에 곳곳에서 관련 단체가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는 거의 중앙사와 대등한 의미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사 연구 성과가 쌓이게 되고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들이 수록되면, 한국사는 중앙사와 지역사가 합해진 것으로 그 외연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한국사를 더욱 풍요롭게 개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연구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드러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다채롭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과

제주도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제주학연구센터를 세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연혁을 자세히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용자로서 지금까지 제주학연구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제주도 연구를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제주도 관련 여러 자료들은 주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재정 지원은 연구를 더욱 촉진시켜 줍니다. 그 외에도 대중적인 활동도 하면서 제주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연구자이므로 주로 역사 관련 부문에 한정해서 언급하지만, 제주어라든가 제주 신화, 구술 채록 등에서도 큰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확실히 제주학연구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 존재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센터의 활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칭은 제주학 ‘연구’ 센터이지만, 연구 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연구자들이 센터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연구보다는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는 제주학연구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사한 성격의 조직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사편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현재 센터는 연구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제공하며 제주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학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센터의 연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제주학 관련 자료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하게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다 많은 자료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문학 대중화도 요즘 하나의 흐름인데, 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센터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센터는 (가)제주학진흥원을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가)제주학진흥원을 위해서 - 재정과 비전

저도 제주학연구센터가 현재보다는 다방면에서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재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는 재정이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이 있으면 훌륭한 연구자를 초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어려움도, 그리고 앞으로 (가)제주학진흥원으로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재정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나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를 보아도 재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에 대한 발표문을 보면 두 기관의 재정은 어느 한 곳에서만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고와 지자체 그리고 자체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제주학진흥원도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센터는 중앙 부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기관이 그냥 쉽게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와 제주도를 설득해서 기껏이 재정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앙 부처나 지자체는, 국민 세금을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대충대충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도 받기에 충분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줍니다. 즉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비전, 아젠다, 구체적인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 대상은 중앙부처와 제주도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민들도 (가)제주학진흥원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중앙 부처인 문체부로부터 19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액수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은 양반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안동과 경복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기관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등 기관의 성과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 뚜렷한 성과가 있기에 중앙 부처에서 크게 지원해도 언론 등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부처의 재정 지원은 정체성이 확실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정체성과 성과를 내고 있기에 그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향후 (가)제주학진흥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주학이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 문화, 양반 문화처럼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어’가 그 역할을 일정하게 담당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주어’를 중점적으로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발굴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요컨대 제주학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련되고 난 후에 그것을 갖고 도민도 설득하고 제주도청과 중앙 부처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제주학 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데, 아직 고민이 부족해서 토론 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학술회의까지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으므로 고민 해서 학술회의 당일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43과의 관계 설정 문제

제주도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 43은 제주도 근현대사에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근현대사는 43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43 이전까지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43 관련해서는 평화재단에서 주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인지 풍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3을 빼놓고는 제주도 근현대사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43관련 활동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43평화재단에서 43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43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도 적극 포섭할 것인지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 근현대사에서 43을 다룰 수 없다는 속된 말로 양꼬 없는 찌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평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내공이 있는데, 센터에서 갑자기 들어가기 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43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제주학 연구자로서 제주학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고 뚜렷한 존재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학연구센터, 향후에는 (가)제주학진흥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회의 논의가 센터와 제주학이 발전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에 관한 제언

진선희(한라일보 편집국 부국장)

제주학연구센터 1차(2012~2016), 2차(2017~2021) 운영계획, 민선 7기(2018~2022) 제주도정 문화 분야 공약(가칭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채택, 가칭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2020)을 통해 최근 몇 년 새 제주학진흥원으로 향하는 걸음을 차근차근 걸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왜?”¹⁶⁾를 묻는 이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재단 형태의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성은커녕 현재 운영 중인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비와 운영비 지원도 미미하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학진흥원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모으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제주학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은 앞서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리 말하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제주학이고, 그래서 제주학은 과거를 넘어 미래상을 그리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1997년 개원한 제주연구원(전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 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¹⁷⁾을 뛰어넘는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제주학연구센터의 목적)이란 대전제 아래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제주연구원의 목적)에 대한 연구·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부설로 2011년 제주학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별도의 제주학 연구 기관이 진작에 생겨야 했다.

16) “제주학진흥원 굳이 왜 설립? . . . 근거 부족·사업 중복“- 제주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뉴시스, 2020년 11월 23일 보도

17)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 제주특별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도의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 수립과 관련한 2020년 8월 제주도민(1005명) 설문조사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가치로 환경(자연)(35.5%), '제주다움'(23.4%), '삶의 질'(14.6%)을 꼽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로는 '제주도의 세계화'(44.0%), '제주도의 미래 성장산업 창출'(33.1%)을 들었다. 핵심가치의 항목이 각각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자연)' 등 '제주다움'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제주도의 세계화'나 '성장산업' 창출은 '제주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 도출될 수 있다.

이때의 '제주다움'은 정체성이 담긴 유·무형의 자원만이 아니라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 화산섬이라는 거친 환경 안에서 제주(제주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 곧 제주의 경쟁력이 무엇이라는 점이다.

제주의 경쟁력이 '상품'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오래전 제주 땅을 밟았던 이방인이 남긴 문헌에서, 구비문학에서, 자연 환경의 변화나 기후위기 등에서 그 단서를 잡을 수 있고, 제주학은 그 기초를 이루는 학문이다. 오늘날 제주를 상징하는 이름이 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해녀문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떠올려봐도 제주학이라는 학문적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 삼다수라는 브랜드의 성공에도 제주 섬의 청정 지하수 연구가 있었다. 만일 제주학의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를 수치화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 한국의 지역학 연구는 1967년 제주대 제주도문제연구소(현 탐라문화연구원) 설립, 1978년 제주도연구회(현 제주학회) 설립 등 제주학 연구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 그 오랜 역사에 비해 연구 기관 활성화와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2011년 출범했다고 해도 제주연구원 부설로 시작됐고, 센터장 공모 등 별도의 조직 체계를 갖춘 건 2016년부터이다.

재단 출범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용역에서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자본금 5억, 2021년 30억 출연금 확보 등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제주도 예산엔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긴축 재정을 들며 근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따지는 목소리를 연달아 내는 중에 출범을 앞둔 제주학진흥원에도 불뚝이 튀는 모양새다. 올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예산(연구사업비, 운영비)마저 2020년에 비해 17.6% 줄었다. 다시금 제주학이 '제주다움'을 밝히는 학문으로 지역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 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4년 3월부터 제주학 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취지로 온라인 아카이브시스템을 개설해 누구든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분야별(총류(267), 철학(8), 종교(8), 사회과학(10785), 순수과학(2593), 기술과학(1616), 예술(1425), 언어(588), 문학(1162), 역사(25778)), 매체별(제주학 DB(6288), 고문헌(259), 해외문헌(22), 고지도(8), 사진(14413), 동영상(1692), 구술(1333), 신문기사(5046), 제주역사(19486))로 구분되어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아카이브시스템을 매년 업데이트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가령 제주를 대표하는 고지도인 탐라순력도의 경우 매체별 고지도로 가면 그 목록이 없다. 대신 분야별 역사로 분류해놓았다. 원도심 등 제주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별, 마을별로 이뤄지고 있는 때에 시대별, 읍면동별 분류도 가능하다. 종합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속할 수 있지만, 해당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흐름도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현재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주학은 제주의 언어·역사·민속 등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주 역사, 제주어, 제주 민속, 제주 해녀 등 네 가지 키워드가 뜬다. 이는 분야별, 매체별 분류 체계와는 또 다른 범주다. 향후 제주학진흥원의 핵심이 될 키워드는 좀 더 다양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고, 알려졌으면 한다.

제주학 진흥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박찬식(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 소장)

● 지역학과 제주학 진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고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발표해주셨으니, 토론자는 제주학 진흥에 대한 시급한 정책적 검토에 치중하겠음

● 왜 후발주자인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기존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 통합)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기존 사회서비스지원단, 제주연구원 위탁운영) 설립에 밀렸는가?

- 사회서비스원 :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관리하게끔 확고한 법적 근거 확보
- 일과 삶 재단 : 청년실업 해소 정책과 맞물린 정책현안으로 급부상
⇒ 도정·국정과 현실이 만남
- 제주학은 의회와 행정에서 찬밥 대우 : 내부 설득력이 미약함을 반영하는 현실
- 제주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과 미래비전의 핵심 대안임을 설파하지 못했음

● 기존 시행 법령과 현재 운영 중인 지역학 출연기관(한국학호남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주학의 범주를 특정해야 할 것임

- 기존 시행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범주대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라는 대학식, 백화점식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임
-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고문서, 고전적 등 고문헌자료에 집중
- 제주학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 독특한 제주문화유산 자원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
 - 역사문화 / 신화 / 언어 / 생활문화(민속) 분야가 아닐까?
 - 그래도 방대함
 - 그러기에 제주학진흥원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매진

역사문화	기록유산	-고문서 148,000, 고전적 15,000, 기타 1,100건 ※ 제주도 호적(고문서) : 전국적으로 최다 수량 보유
	문화재	- 지정문화재 : 유형 36, 민속 82, 기념물 128, 무형 22개 - 비지정문화재 : 1,500여개
	탐라역사	“탐라 고대해상왕국 1천년 역사와 유적” - 고산리 선사유적, 삼성혈, 혼인지, 성주청, 탐라성곽유적, 무덤유적, 마을유적, 향파두리유적, 목호란 유적, 불교유적, 탐라 입춘굿 등
	조선시대 근현대사	- 출륙금지령, 유배문화, 3읍9진성·봉수·연대 등 해안방어유적 - 굴·전복·말 등 진상, 거상 김만덕 - 이재수란, 해녀투쟁, 항일운동, 4·3사건 - 감귤산업, 제주개발사
신화	신화	제주는 예로부터 “당오백 절오백” : 신당·신화의 천국 - 설문대할망 신화, 창세신화, 탐라개국신화 - 1만8천에 이르는 수많은 신과 내력담 신화 - 300여 개가 넘는 당 신화
	굿	- 큰굿, 열두본풀이, 삼승할망, 자청비, 칠성신, 송당리 당굿 백주또여신, 삼신할망, 하로산또, 영등할망, 잠수굿 등 ※ 칠머리당영등굿 : 유네스코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
	민요	서우젓소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불미공예 노래 해녀 노젓는 노래, 느영나영, 오돌또기 등 전래 민요의 보고
제주언어	일반어휘	“고대와 중세 한국어의 원형을 간직한 언어의 보고” 표준어에서 사라진 아래아(·) 관련 고유어 간직 - 집안·공동체·산업생활, 사람/동물/식물/사물, 자연 관련어휘
	특수어휘	- 해녀, 심방과 굿·본풀이, 민요, 오름, 바다밭, 지명, 목축, 농경 관련 어휘
생활문화	목축	- 테우리(목자), 國馬場(국영목장), 私馬場, 조랑말, 말 진상 - 목마장 시설(자성, 장통, 통, 원장과 사장, 간장, 바령팓)
	해양(해녀)	- 원담, 방사탐, 망대, 잠수굿·영등굿, 영전 - 탐라배 복원 운항(덕판배), 표류·표착(하멜, 김대건) - 해녀어업, 해녀문화 : 숨비소리, 전복 진상, 출가해녀, 불턱 ※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
	돌담	- 울담, 올레, 밭담, 산담(무덤), 원담, 돌담문화경관 ※ 제주밭담 : 유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일단 올해는 물 건너갔음
 - 내년 상반기 행안부 심의에 대비한 철저한 논리 개발
 - 우선 도 조직담당 부서(예산담당관실),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유관부서(세계유산본부)와의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내부 협의부터 선행
 - 도민 설득을 위해서는 도의회 설득이 전제되어야
- 신규 법령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연구조직을 어떻게 제주학진흥원 설립 과정에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 법령으로 규정된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준독립적인 조직 위상 설정 필요
 - 탐라역사문화권 해당 시기 : 고대 탐라(길게 잡아야 조선초기 성주·왕자직 폐지 때까지)
 - 문화유산 발굴·관리, 문화권 자원(유·무형) 연구, 문화권 관련정책 집행 기능
- 현재 기울어진 연구조직의 균형 발전 전략 필요 : 제주어 편중

● 장차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것인지?

- 독창적인 사업개발을 통한 자원 창구의 다양성 : 문광부 공모사업 등 적극 대응
- 제주학 학문후속세대의 장학재원 확보
- 국내외 제주학 연구자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제주학진흥원 재원 확보
- 제주학대학원 : 제주대학교와 협업
- 제주학연수원 :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사례
- 제주학국제교류센터 : 동아시아 해양문화벨트, 지중해 섬문화 연구기관 등과 교류
- 제주문화유산자료관의 설립 운영 :
 -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제주학아카이브의 혁명적 개편
 - 매장문화재, 고문서, 구술사(民話)자료, 생활문화도구, 신화콘텐츠, 언어콘텐츠 등 소장 및 조사·연구,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활용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비매품

